

제 30 집

예 산 문 화

예 산 문 화 원



한국예총 예산지부장

文鄉으로서의 命題

韓 敬 求

韓國藝總禮山支部長

먼 옛날에 中國文化는 黃海를 거쳐 唐津의 한진에 上陸하여 禮山의 德崇山 기슭에 伽倻寺를 중심으로 奇着했다가 다시 南下하여 新羅를 거쳐 日本에까지 건너갔던 것인데 이러한 文化潮流는 오랜 歷史의 變遷過程을 겪는 동안 그 遺蹟이 사라져버려 이제 그 文化實體를 拔萃할 수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百濟가 亡하여 義慈王이 蘇定方에게 唐나라로 잡혀 가자 義慈王의 조카인 福信과 僧道琛, 그리고 黑齒常之, 遲受信將軍등이 日本에 가있던 王子 豐을 되셔 王으로 삼아 任存城에서 羅唐聯合軍에게 抗戰하여 百濟復興을 圖謀하였으나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敵軍에게 陷落되고 말아 그 流民들은 內浦地方으로 흩어졌으니 오늘날 內浦사람들이 억세다고 하는 뜻은 百濟流民들의 後裔인 까닭이다.

이러한 百濟人들의 愛國精神은 먼 훗날 이 고장에 尹奉吉義士와 같은 愛國志士를 輩出した 矜持를 지녀 오게 된 바 이로써 우리 고장을 “忠義의 고장”이라 일컬어 온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矜持는 傳統的으로 藝術文化에 寄與하므로써 마침내 文鄉으로서의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李朝中葉에 이르러 仙石 辛啓榮을 비롯하여 東巖 朴斗世, 自菴 金綵, 惠賓 李用休와 錦帶 李家煥의 父子, 秋史 金正喜 그리고 現代에 이르러 文人으로 活躍한 李海文, 方仁根, 李熙澈, 成贊慶, 成耆兆, 方榮雄과 20世紀 美術大家로 指稱되는 顧菴 李應魯와 一浪 李鍾祥, 아울러 演藝界의 高雲峰등은 모두 우리 고장의 藝術文化를 빛낸 人物들이다.

이렇듯 文鄉으로서의 脈을 이어 온 우리 고장의 藝術文化는 그 傳統을 이어 나가는데 있어 그에 關한 發展方向을 우리 스스로 講究하지 않는다면 우리 고장의 地域藝術文化는 끝내 歷史의 베일속에 묻히고 말 것이다.

이러한 次元에서 우리 12萬鄉民은 勿論 出鄉民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傳統된 우리의 固有한 藝術文化에 대한 發展的 未來를 위하여 眞心어린 愛情과 積極的인 聲援으로 그 터전을 굳건히 다져나가야 할 命題를 안게 된 것이다.

이는 21世紀에 當面하여 藝術文化가 가장 附加價值가 높은 商品으로 期待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世界先進列強들은 自國의 藝術文化에 대하여 深度있는 配慮와 그 發展追求에 總力を 傾注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제 21世紀에야 말로 藝術文化가 脚光을 받는 藝術文化全盛時代가 展開되고 있는 것이다.

1999년 6월발행
통권 제30집

예산문화

차례

■ 여는글 — 문향으로서의 命題 —
한국예총예산지부장 韓敬求

● 발간사 — 이지호원장 / 2

◆ 예산문화원 지역문화학교 소식 / 3

■ 청소년어울마당행사 이모저모 / 5
(특집 : 정월세시풍속놀이)

◎ 특별기고 ① 군민의 정신세계를 주도하는
「예산문화」가 되기를
문인협회 예산군지부장 신석근 / 7
② 시조문화예술의 중요성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악개발총연합회
예산시우회장 이기봉 / 9

回 세시풍속놀이 (① 정월) / 13

□ 예산군지정문화재 총괄표와 목록('97. 12. 23현재) / 22

○ 예산군 문화유적탐방안내를 위한 자료정리 1.
추사고택, 충의사 / 28

◇ 지방문화원 진흥법 게재 — 편집실 / 35

▷ 토막상식 / 38

◎ 轉載 — 한자교육의 현황과 대책 / 40

□ 예산군 청소년 상담실의 활동보고 / 44

발행인 이 지 호
편집 김 문 희
발행처 예산문화원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433
전화(0458)335-2441
FAX(0458)334-4330

인쇄 충남인쇄사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4-11
전화(0458)333-2607

표지화면은
예산문화원 회원단체인
풍물패「아사달」
(회장 우제풍)의
공연장면을 엮게 되었습니다.

발 간 사

— 문화를 바탕으로

제2의 건국을 실현해야 —



예산문화원장

공기와 물이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첫번째 순서로 손꼽힌다면 그 다음은 문화(文化)가 꼽히리라고 여긴다.

여기서 문화의 어원(語源)을 보면 영어의 culture 또는 독일어의 Kultur를 번역한것에 기인해서 라틴어의 cultura, 그리스어의 colero에서 유래한 것이며 농사(農事), 경작(耕作)의 의미를 지녔으니 이를 바꿔서 이해할때 문화는 인류가 생활해감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될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를 장만하는 활동과 그 근원(根源)을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공기, 물, 문화중 어느것도 그 중요함을 평소에 느끼지 않는채로 우리는 지나쳐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공기와 물은 자연적으로 지구와 함께 존재하는 불멸의 물질이겠지만 문화는 위의 어원이 가리키는바 처럼 경작하여야 얻어지는 것으로서 R. William은 그의 일설(一說)에서 “문화는 지적이고 예술적인 작업의 기초일뿐아니라 전체생활양식으로서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낮과 밤을 통괄하여 사회적 사실로 관찰된 것으로서 더이상 자연적인 상태가 아닌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문화를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가꾸어진 문화속에서 전체생활의 향상을 얻어내야 한다. 바야흐로 거국적으로 제2의 건국이 주창(主唱)되고 있다. 이 또한 문화를 바탕으로 실현해야 한다. 불멸(不滅)의 것이면서 그 중요성이 나타나 있지않고 경작을 해야 얻어낼 수 있는것이 문화이기에 우리는 이 문화를 가꾸어서 그 결실(結實)로서 생활의 향상을 얻어내야 한다. 문화는 가꾸면 가꿀수록 우리에게 미래의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고 있기때문이다.

1999년 6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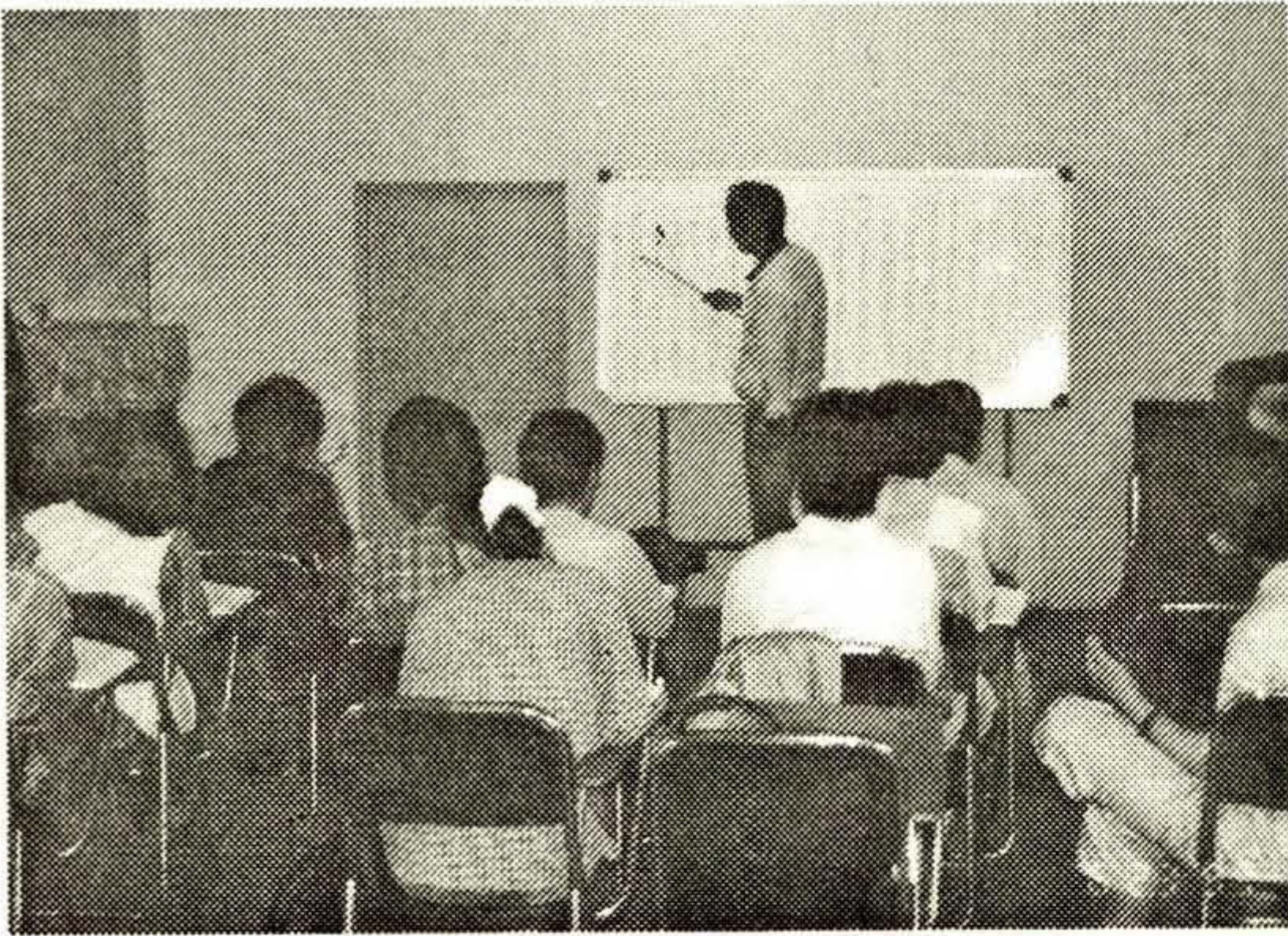
예산문화원장 이 지 호

예산문화원 지역문화학교 안내

“신입생 수시 접수중”

접수처 전화 0458-335-2441

한학반



매주 화·수요일
오후2시~4시

한국화반



매주 월요일
10시~오후3시

주간서예 오전반



매주 목요일
10시~오후1시

주간서예 오후반



매주 목요일
오후2시~5시

야간서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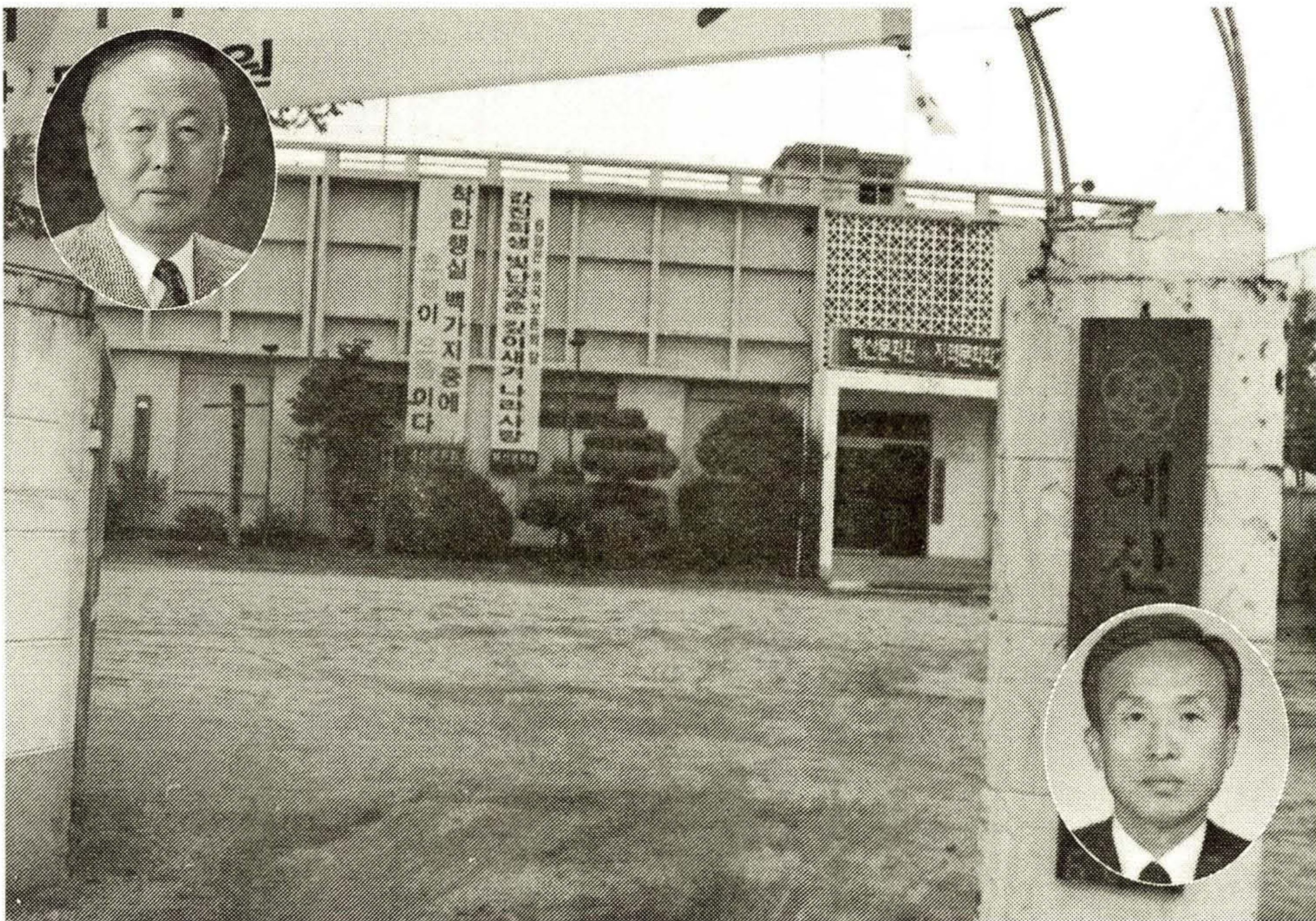


매주 월·금요일
오후6시~8시

시조반



매월 8, 15, 21, 말일



예산문화원 지역문화학교 전경

(사진 위 이지호 교장
아래 김문희 교무담임)

화면으로 보는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이모 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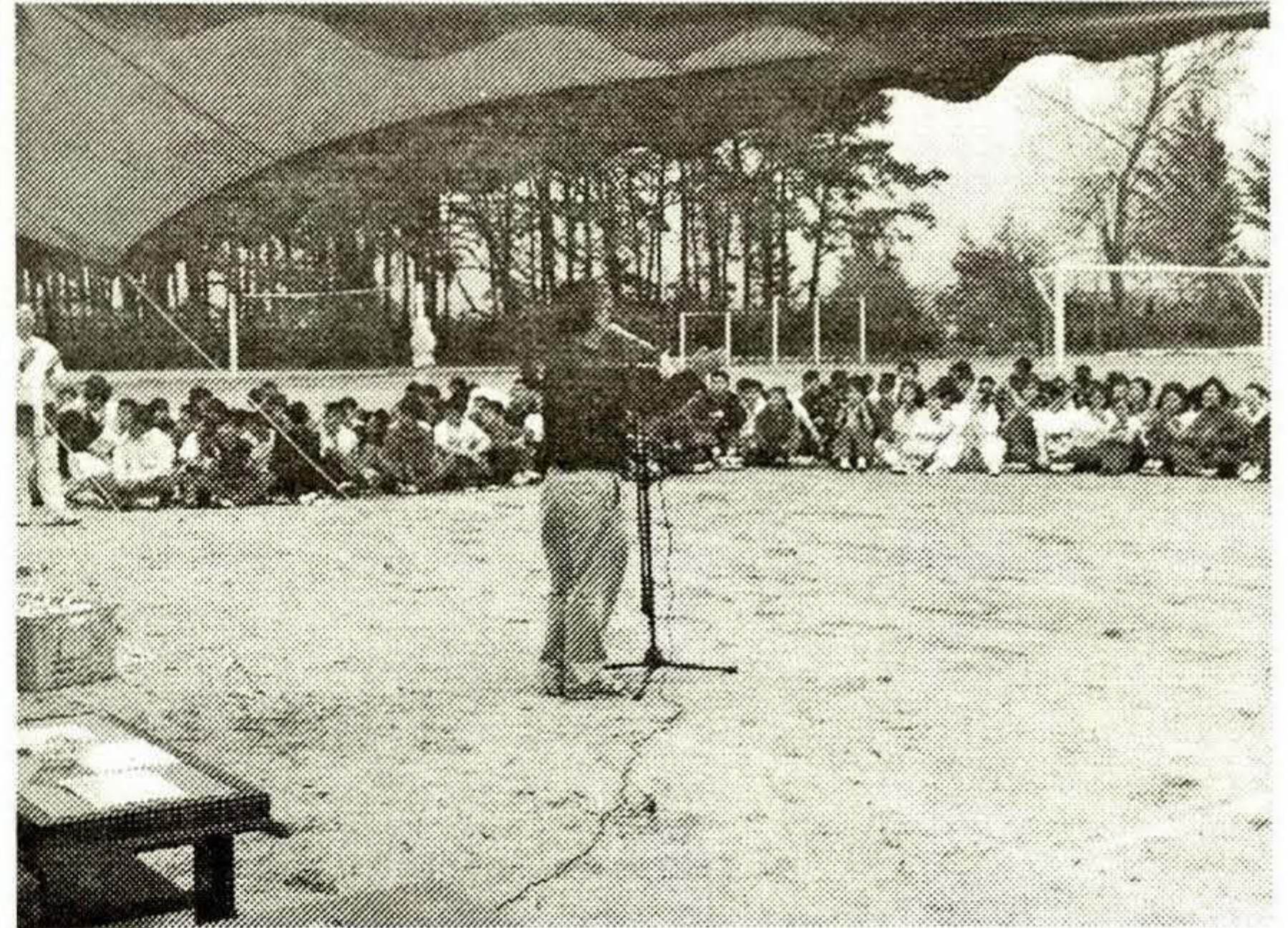
2월 행사 세시풍속놀이(예산군내 중학교 대항 윷놀이)



3월 행사 김남조선생 강연회



▲
5월 행사
덕산고등학교 풍물강연 ▶



▲
6월 행사 구성애선생 특강 ▶



군민의 정신세계를 주도하는 「예산문화」가 되기를

문인협회 예산지부장
신 석 근



문인협회 예산지부장

우리 예산을 한자로 표기할 때 예도 예자를 써서 「禮山」이라 표기한다.

예(禮)자를 분해해 보면 보일시(示)변에 풍년풍(豐)자를 붙여서 만든 글자임을 알 수 있다.

필자가 한자의 생성과정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다거나 연구를 하지 않아서 이렇다하고 확인을 할 수는 없으나 나름대로 이런 풀이를 해 본다.

보일시(示)변에 풍년풍(豐)자를 붙여서 예도례(禮)자라 한 것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해야 예의를 차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 '수염이 석 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속담이 조상들에게서 전해져 내려온 것을 보면 한층 더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사람들의 속성을 글자 만드는 이들이 참작해서 예도례(禮)자를 만들었을 것이란 추측이 간다.

예도례자의 속 뜻을 생각하다 보니 예산의 지명을 왜 禮山이라 부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미친다.

몇 가지 문헌을 들추어 보니 고려 태조 2년부터 예산현이라는 지명이 사용됐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런데 왜 禮山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필자 나름대로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추측을 해 보았다.

예산 지역은 비교적 들이 넓고 땅이 기름지다. 삼교천과 무한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펼쳐지는 너른 들은 우리 나라의 그 어느 평야와 견주어도 그리 웅색해 보이지 않는다.

또, 예산 지역은 기후가 온화하고 자연 재해가 비교적 적은 곳이다.

항간에는 이런 속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천안의 흑성산과 당진의 아미산, 그리고 광천의 오서산을 선으로 그으면 삼각형이 되는데, 그 삼각형의 선 안에 드는 지역이 우리 나라에서 자연재해(가뭄이나 홍수)가 가장 적은 곳이라는 것이다.

이런 속설이 고장을 자랑하기 위해서 누가 만들어 낸 말인지, 아니면, 풍수지리에 밝은 그 누가 어떤근거를 두고 한 말인지 분간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오랜 기간 살면서 경험을 한 바로도 예산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자연재해가 적은 곳임에는 틀림이 없다.

들이 넓고, 땅이 기름지고, 재해가 적으니 자연 모든 게 풍성하고 넉넉했으리란 추측이

간다. 땅에서 나는 농작물이 넉넉하고 풍성하니 사람들의 성품도 온화하고 느긋했을 것이다.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사람들의 성품이 부드러우니 자연 禮를 숭상하게 되었으리라, 그러니 자연스럽게 禮자를 붙여서 예산이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아무튼 예산이사람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모양이다. 대산반도를 통해 유입된 인류가 운산, 고덕을 거쳐 예산과 덕산, 대흥 지역에 생활의 거점을 마련하고 종족을 퍼뜨린 것으로 추정하는 사학자들의 말을 봐도 그것을 짐작케 한다.

이런 예산 지역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농경이 생활의 전부이던 우리네 조상들이고 보면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여조나 이조 때 많은 선비들이 예산 지역에 와서 살았다. 그러다 보니 또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기도 했다. 우리들 주변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화유적들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우리는 주변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을 통해서 조상들과 만날 수 있다. 몇 백년, 혹은 몇 천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참으로 가슴 설레는 일이다.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슴엔 애잔한 그리움 같은 것이 잠겨들기도 하고, 어머니 품속에 안긴 것 같은 아늑한 마음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일종의 귀소본능일 수도 있겠고, 옛것에 대한 향수일 수도 있다.

향수에 젖어 있는 동안은 더없이 호젓하고, 아련한 행복감마저 느낀다.

우리는 이 호젓한 행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후대에도 물려 주어야 한다. 조상들에게서 물려 받은 문화유산을 잘 갈고 닦아, 그 위에 우리들 것까지 더함으로 더 얹어서 후손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 사업을 문화원에서 앞장서 해 내고 있으니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다. 또, 행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길을 밝혀 주고자 「예산문화」誌가 발벗고 나섰으니 갈채를 보내는 바이다.

요즘 들어 문인협회를 비롯하여, 미술협회, 국악협회, 연극협회 등이 우리 지역에 지부를 결성하고 활발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문화원과 각 예술 단체들이 한 몸이듯 서로 돕고 보완해가며 지역을 위해 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우리는 물질적인 가난에서 헤어나고자 몸부림치며 온갖 고생을 다 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여 벗지 않고,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됐다, 또 하나 터득한 것은, 물질적인 부만으로 인생이 기쁨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 2000년대에는 물질적인 부가 아닌,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총 매진해야 되겠다. 「예산문화」誌가 그 길잡이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時調文化藝術의 重要性

烏 山 李 起 鳳
八峯山人

序 言

歴史를 考察하면서 時調文化藝術의 重要性을 論함에 있어 첫째로 우리나라 1594年頃 朝鮮朝 宣祖時代 文廟 配享에 오르신 유명한 大學者 牛溪 成渾 先生이 作詞하여 읊으신 다음과 같은 時調는 우리 民族의 時調文化藝術의 指針이 되며 國家發展에 礎石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詩

1. 말 없는 靑山이요 태 없는 流水로다
2. 값 없는 淸風이요 임자없는 明月이라
3. 이 중에 病없는 이몸은 分別없이 늙으리라

이 글은 實로 천추에 빛이 나고 萬秋不滅이라 하겠다. 猥濫됩니다마는 이 詩의 大意는 人生哲學을 天地大自然안에 詩로 表現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 얼마나 意味 深長한 글인가 可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예로 부터 이르기를 詩文藝는 國民의 思想 精神 變轉換에 重大한 要素가 될 根源으로 친다고 하였다. 時調文化藝術은 우리 國家民族 固有의 한 文化遺産임에 틀림없다. 눈에 보이는 彫刻品이나 美術品만이 文化財의 全部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先賢들은 時調를 우리 民族文化의 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現在 우리나라 初·中·高等學

校에서 靑少年들의 心性을 가다듬고 아름다운 詩心을 불어넣어 人間教育의 一環으로 時調짓기와 읊는法等까지의 교육을 베풀고 있다는 것은 매우 鼓舞的인 現狀이라고 生覺한다. 따라서 우리 時調 大家 同好諸位는 時調中興에 積極 同參하시어 效率的인 大衆生活化에 슬기와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敢히 提言하는 바이다.

時調는 우리 民族의 藝術

우리의 눈부신 國力伸張의 土臺위에서 希望의 새 歷史 기틀이 磨鍊되어 가고 있는 開放化, 世界化를 指向하는 趨勢에 있다. 未來의 21世紀에서 우리가 世界속에 主役 國家로 浮上하기 爲한 覺醒과 努力이 要求되고 있는 時點에 와 있다. 또한 希望과 絶望이 交叉되는 無限競爭時代에 살아가는 우리는 決코 時代的 흐름만 重視해서는 안될 重要的 課題를 안고 있다.

그것은 곧 道德性이 깃든 人性教育과 나아가서는 우리 民族의 傳統文化를 疏忽히 한 自責과 새로운 進路選擇이 摸索되어야 한다. 또한 世界化를 爲해서는 政治와 經濟 그리고 社會와 文化體育등 모든 分野가 先進化 됨은 勿論이고 特히 바람직한 社會相의 모델은 經濟發展과 함께 우리 固有 民族文化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우리 傳統文化는 悠久한 4千年의 歷史속에서 綿綿히 이어져 내려온 祖上의 얼로 國民들의 情緒醇化에 土臺가 되어 人間 倫理道德과 忠孝精神 民族守護의 大 役割을 擔當했으며 다시 말해서 그것은 道德的 價値觀의 集約이며 그에 따른 精神文化는 平和와 사랑이라는 人類의 最高 目標를 理念으로 삼고 있어 忠孝의 나라 東方禮儀之國이라는 道德性 높은 人性의 나라로 認識되어 왔다.

이 時點에서 外來物質文化에 밀려 褪色되어만 가는 傳統 時調文化를 回生시켜 높이 昇華시킴으로써 民族文化의 自主性を 되찾고 國民情緒醇化에 寄與할 것이 確實하며 그 價値가 매우 높다고 評價되는 바다.

또한 밝고 健全한 正義로운 삶의 質이 높은 社會建設의 基本要素가 國民情緒에 달려 있다고 볼때 우리 國民은 各自가 時調 同好 先賢들의 水準높은 精神文化 기틀이 되어온 時調를 메마른 우리 精神文化에 昇華시켜 참다운 人間像이 무엇인가 探求하여 時調文化 繼承發展에 同參하여야 하겠다.

時調唱의 由來

時調는 悠久한 歲月을 두고 우리나라 固有의 正歌로 先祖들께서 즐겨 愛唱하셔 오셨다. 그런데 時代와 地域에 따라 若干씩 다른 모습을 보이긴 하나 우리 民族의 心性和 意識을 담고있다. 古今을 通하여 우리의 나라 音樂은 부드럽고 너그러우면서도 멋과 맛을 지녀왔다.

時調는 이 天地 大自然속에서 自然의 調和를 基本으로 하는 音樂이다. 우리 祖上들은 이 大自然에 順應하여 삶을 살아왔다. 時調는 自然의 精神 이 삶의 方式이나 藝術等 모든 方面의 基調로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그

런 點에서 自然의 生動하는 모습을 본뜬 時樂이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붙인 것이요 虛에서 發하여 自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血脈을 뛰게하고 精神을 流通케 하는 것이다.

기쁜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느긋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點에서 自然의 生動하는 모습을 본뜬 時調야 말로 自然順應의 한 事例인 셈이다. 時調는 작은 시냇물 처럼 졸졸졸 흐르는가 하면 長江大河의 깊고 넓은 餘裕를 보이기도 하고 瀑布水처럼 天地를 震動하는 轟音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모두가 各各 自身들의 목소리만을 내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相互補完의 關係를 通하여 全體的인 調和를 이루는 點에 그 特徵이 있다.

그러하다면 오늘날 果然 우리들을 이러한 調和의 뜻과 傳統을 제대로 이어받고 있는가 疑問스러운 點 없지 않다. 결코 그렇지 못하다 于先 時調에 담긴 祖上들의 깊은 思想을 제대로 把握하지 못하고 있다. 祖上들은 時調의 音樂을 通하여 하늘과 自然이 베풀어준 人間 本性대로 착하게 살고자 하는 理念을 表象하였다. 다시 말하면 藝術精神을 全體로서 받아들이기 보다는 音樂에서 發見할 수 있는 無窮無盡한 그 音樂에 時調同好先賢者들은 우리의 民族精神을 잘 表現한 藝術形態를 잘 찾아 表現하여야 하겠다.

時調唱의 意義

時調音樂은 내음을 바르게 해서 德을 기르는 것이라 했으니 時調는 곧 音聲의 아름다움을 極盡히 하는 것과 國民의 美風良俗으로 바꾸어서 사람의 마음을 善良하게 만듦과 同時에

社會를 淨化시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다.

時調生活化

예로부터 이르기를 노래없는 人間은 香氣 없는 꽃과 같다고 하였다. 우리 時調 時友 詩人들은 우리 民族 固有의 定型詩인 時調를 日常生活속에 누구나 즐겨 외우며 부르고 지을 수 있는 바탕을 磨鍊해 줌으로써 傳統文化에 對한 깊은 理解와 愛着心を 길러 國民情緒醇化에 寄與하고 時調教育을 通하여 世界化를 이루어 질 것으로 믿는다.

노래를 즐기는 民族

우리 民族은 古今을 통하여 各種 모임에 參席하면 男女老少 貧富貴賤을 莫論하고 노래를 즐기지 않는 사람은 없다. 特히 우리 民族은 때와 場所 그 모임의 性格과 目的을 가리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 하니 그 얼마나 노래를 즐기는 民族인가를 可히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노래를 부르는 者と 듣는 者가 서로 마음과 生覺을 나누는 藝術行爲로서 즐겨 불렀다 하는 그 技能 또한 多様했으며 힘과 威力도 大端했던 格이다.

노래는 우리 歷史와 함께 存在했으며 音樂과 노래 宗教는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하겠다.

儒教를 근본으로 삼던 朝鮮李朝時代에는 禮樂을 重視하고 世宗27년에는 重臣들이 龍飛御天歌를 作詞作曲하여 王에게 올렸다는 與民樂에 記錄되어 남아 있다. 龍飛御天歌의

뜻을 說明한다면 다음과 같다.

皇室의 歷代가 無窮히 길게 繼承하라는 視歌이다. 이 御天歌는 아무데서나 부르는 게 아니고 宮中에서 宮中行事에 부르는 歌詞라 한다.

노래 中에는 歌曲, 歌詞, 時調로 區分되어 正歌에 屬하고 自由로운 唱으로 불려왔다.

君子가 말하기를 禮와 樂은 暫時도 우리 몸에서 떠나서는 안된다고 했다.

樂이라는 것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禮라는 것은 밖에서 움직이는 것이며 樂은 和를 禮는 順을 極盡히 하여 마음속을 和平하게 하고 겉 模樣은 柔順하게 하는 禮樂의 道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文化藝術이 國家發展에

偉大한 礎石

自古로 聖賢들도 禮樂을 崇尚 道德에 依據하여 文化藝術을 土臺로 仁義禮智信 五常을 恒時 心念하여 生活化하였다.

特히 孔子는 學問에만 專攻한게 아니고 器樂美에 對한 鑑賞體驗을 陳述하고 音樂 작품 演奏에 또는 藝術的 眼目이 높고 作詞 作曲을 直接하고 노래를 通하여 道德에 和順하면서 學問의 完成을 이룬다고 하였다. 또는 音樂이 같은 水準으로 昇華될때 바른 政治가 되고 이 政治가 全國民에게 과금될때 修身齊家하여 治國平天下가 이룩될 것으로 確信한다고 하였다.

樂의 重要性

中國 歷史를 觀察하면 楚漢戰에 張良이라

는 謀事 將帥가 한 밤중에 楚兵陣地에 向하여 父母妻子兄弟를 기리는 玉笛을 슬피불어 散楚兵하여 楚나라가 敗戰하였다는 史實을 보아도 그 藝術이 國家存亡을 左右하는 偉大함을 알 수 있다.

時調는 元來 다른 나라에는 없는 文學이고 古今을 通하여 우리나라 傳統文化藝術이요 國民情緒 文化暢達을 爲하여 醇化하고 있는 音律 禮樂의 한 部分을 차지한 藝術이므로 이 좋은 時調唱을 國民化 運動이라 하여 全國 男女靑少年에게 널리 普及하여야 하겠다. 그러하므로 社團法人 韓國傳統禮樂開發總聯合會 李龍馥 理事長을 爲始하여 여러 任員 其外에 全國에 散在하고 있는 時友團體 名唱, 國唱 여러분들이 基本 唱法에 바탕을 두고 全國 各地에 支部를 두고 男女時調競演大會를 開催하는 등 其他 여러 方法으로 普及에 獻身 努力하며 英才를 輩出하고 있는 現狀이다.

우리나라가 世界 萬邦에 國威가 宣揚된 그 하나의 例를 들면 1988년에 우리나라에서 國 제올림픽을 開催하였는데 그 開會式 또는 閉會式 其外 各種 文化行事 그 모두가 우리 文化藝術人들의 創作品인 것입니다. 이 올림픽을 通하여 우리나라의 國威가 宣揚되고 一等 國 隊列에 서게된 事實을 볼때 文化藝術이 그 얼마나 偉大한가를 斟酌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또 하나의 例 1996. 10. 10日 世界日報에 掲載된 記事

美國의 有名な 歌手 한 사람이 우리 나라에 온다해서 온통 나라가 떠들썩 했다는 記事였다. 그 歌手 한 사람이 내린 金浦空港에는 1,800名の 우리나라 警察이 非常警護를 폈다. 國家的 行事도 아닌데 우리 警察이 엄

청난 費用을 써가며 警護에 나설 일인지 도 무지 理解가 아니간다. 그러나 그 歌手의 隨行員만도 200名이나 된다고 하니 그 얼마나 世界的으로 有名な 歌手일까 이로써 미루어 볼때 文化藝術이 人類 國家發展에 偉大하고 至大한 土臺가 된다는 事實을 또한번 可히 斟酌할 수 있다.

結 言

예로부터 所謂 功蹟碑는 死後에 建立하는 게 通例로 되어 있는데 現社會는 生前에 建立하는게 바람직하다는게 例로 되었다.

그러하므로 時友會員 諸位께서는 1996. 9. 9 筆者에 對한 功蹟碑를 建立하였는데 生存中の 功蹟碑임으로 筆者는 會員任들께 報答의 意味에서 頭序없는 時調에 대한 論理의 一端을 先輩時友 時調師範 時調名國唱 여러 巨星앞에 猥濫되고 悚懼한 마음 禁할바 없지만 筆者의 所信을 簡單히 써 보았다.

筆者는 이미 90 고개를 넘어 100 고개를 向하고 西山落照에 해는 지고 黃昏길을 걸어가 는 老軀인대 무얼하겠소마는 그나마 남은 餘生을 즐겁고 보람있게 살아보려고 努力하는 바이다.

아직도 社團法人 韓國傳統禮樂開發總聯合會 禮山支部長職을 在任中이며 其外 禮山地域社會 여러 老人團體 會長職에 재임중이다. 또한 法務士職에 在任中이다.

人生百年古來稀요 月下松鶴千年壽라 한 이 詩를 土臺로 老益壯의 健康을 維持하는 現狀이다.

정월세시풍속놀이

I. 세시풍속(歲時風俗)놀이

(1) 윷놀이

정초에 남녀노소가 보편적으로 행하며, 우리의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놀이가 윷이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농가가 한가해지면 여러 가지 오락이 행해지거니와 겨울이 되면 방에 들어앉게 되면서 부터 윷놀이는 우리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놀이가 되었다.

윷은 부녀자용과 성인 남자용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 우리 고장에서는 특별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윷을 우리 지방에서는 흔히 윷가락이라고 한다. 윷가락을 만드는 나무는 대부분 밤나무를 사용하고 있으며 만드는 방법은 직경 3cm 정도 되는 밤나무로 길이 15cm 정도 되게 잘라 이것을 둘로 겹을 따라 잘라서 양면을 다듬어 둥글게 만든다. 겹은 검고 속은 흰색이므로 등불에도 안팎이 잘 보이게 된다.

윷은 바른손에 쥐었을 때 네 쪽이 손안에 꼭 들면 알맞으며, 신명나게 소리치며 지상 1m 정도의 높이로 던져 땅에 떨어지면 안팎의 상태를 가지고 놀이를 하는 것이다.

그 등급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젓혀지면 도, 두 개가 젓혀지면 개, 세 개가 젓혀지면 걸, 모두 젓혀지면 윷, 모두 엮어지면 모라고 하며 모는 5, 윷은 4, 걸은 3, 개는 2, 도는 1발(칸)씩 가게 된다. 윷놀이에서는 많이 갈수록 유리한 것이다.

윷놀이는 두 사람 이상 몇 사람이든지 편을 짜서 돌아가면서 놀이를 할 수있다. 미리 마련한 윷판에 말판을 그려놓고 윷을 던져서 나타나는 수대로 말을 전진시키는데, 말 네 개가 먼저 나는 편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 말은 두 개 이상이 겹쳐서 전진할 수 있고 도중에 적의 말을 잡는수도 있으니, 윷도 잘 놀아 수를 내야 하거니와 말을 잘써서 적을 잡게 작전을 잘해야 한다. 윷이나 모가 났을 때와 모가 났을 때와 상대 말을 잡았을 때는 같은 사람이 다시 계속해서 윷을 던진다.

말판은 한쪽이 다섯칸씩 정사각형으로 20칸과 중앙을 교점으로 한X자형으로 3칸씩 사방으로 펼쳐져서 합계 32칸으로 되어있다.

이와같이 노는 윷놀이는 겨울에 어느 마을에 가든지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흥을 돋우어 주는 유희로 이 놀이를 하며 밤을 새우는 수도 있다. 방에 담요를 깔고 때로는 마당에 멍석을 펴고 논다. 부녀자들이 내실에서 요나 담요를 깔고 놀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 윷놀이 대신 일제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혼을 말살 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화투로 하는 일명 고스톱이라는 놀이로 인하여 윷놀이가 뒷전으로 둘러난지 오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볼 수 있었던 주막 앞에서의 막걸리 내기 윷놀이가 사라지고 한번 자리잡고 방안에 앉으면 밤을 새우는 고스톱은 망국의 병으로 이 땅에 자리 메김이 완전히 끝나 버린 상태다. 청소년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직장의 상사와 말단 사원, 아

녀자들 끼리끼리 모이면 고스톱이 판을 치고 있다. 이로 인한 윗놀이는 건전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가정, 교회, 사찰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다.

(2) 자치기

자치기는 어린이 놀이로 적당한 길이와 긴 막대기와 짧은 막대기 1개를 가지고 노는 놀이이다. 자치기는 이렇다 할 장난감이 없었던 옛날에 어린이들이 어울려서 가장 손쉽게 즐길 수 있었던 놀이로 둘 또는 그 이상의 어린이들이 편을 지어 땅바닥에 원을 그려 놓고 긴 막대기로 짧은 막대기를 쳐서 날려보낸다. 또는 땅바닥에 흙을 파고 흙 위에다 짧은 막대기를 가로로 얹고 긴 막대기로 날려보내기도 한다. 원 또는 흙 앞 적당한 거리에서 이것을 받거나 받지 못하면 주워서 원과 흙으로 던진다. 서로 정한 약속에 따라 긴 막대기로 짧은 막대기를 쳐 올려, 한번 또는 그 이상 튀기어 날려보낸다. 이것을 상대방이 잡으면 편을 바꾸고, 못 잡으면 날아가 떨어진 막대기와 원 흙까지의 거리를 긴 막대기로 한자 두자 재어서 자수(100자, 또는 그이상)내기를 한다. 이와 같이 놀이 도구와 방법이 단순하여 어린이들에게 널리 퍼져 특히 남자 어린이들 사이에 성행되어 집 앞 또는 동네, 마당 같은 곳에서 수시로 놀았던 놀이이다. 우리 고장 어디에서나 자치기는 성행하였다.

(3) 널뛰기

정초에 여성들이 하는 놀이다. 설빔으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넓이 한자에 길이는 열 자쯤 되는 두꺼운 판자를 짚단이나 가마니 같은 것으로 괴어 놓고 양쪽에 한사람씩 올라서서 서로 발을 굴러 공중에 높이 솟아오르도록 하는 놀이다. 놀이 자체가 힘주어 뛰는 것인 만큼 다리에 힘이 있어야 하며 소녀와 젊은 부인들이 하는 놀이이고 노파들은 하지 않는다. 부녀자들의 외출이 자유스럽지 못하던 옛날에는 끼리끼리 안마당에 모여 놀았으나, 높이 담위로 뛰었을 때에는 밖에서도 바라 볼 수 있었으나 못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던 놀이이다. 여성들이 안방에서만 살아 왔기에 연약하다고 하지만 널뛰기는 매우 씩씩하고 과격한 운동이어서 활발한 기상을 길러 준 놀이이며 추운 겨울에 알맞는 놀이이다. 우리고장에서도 널뛰기를 즐겨 하였으나 요즈음은 보기 드문 놀이가 되었다.

(4) 제기차기

남자아이들이 즐겨 노는 제기차기는 주로 음력 정초를 전후한 겨울철에 성행되는 놀이이다. 골목이나 마당에서 몇몇 소년들이 어울려 제기차기하는 모습은 요즈음도 간혹 볼 수 있으나 거의 사라지고 민속놀이라고 해서 민속적인 행사시에나 마을별 직장별 학급별 시합이나 하는 정도로 좀처럼 보기 어려운 놀이로 변하였다.

놀이 도구는 얇은 종이와 가운데 구멍이 뚫린 엽전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제기를 만들어 놀 수 있어 어린이들 사이에 크게 성행한 놀이이다. 제기차기는 어린이들의 정신 집중력을 길러 주며 덧붙여 온몸 운동이 된다. 상대방 보다 한번이라도 더 차올려야 이기게 됨으로 무슨일

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제기차기는 우리고장 어디에서나 놀이로 즐겼다.

(5) 팽이치기

겨울철에 소년들이 팽이치기를 한다. 팽이는 소나무를 잘라 자귀로 밑부분을 뿔족하게 다듬은 다음 뿔족한 부분에 못이나 쇠구슬을 박아 단단하게 하고, 길이 40m 크기의 막대에 끈을 매달아 채를 만들어 단단하게 굳은 마당이나 빙판에서 채(팽이채)로 팽이를 쳐서 돌게 한다. 팽이는 치는 것만으로도 오락이 되지만 소년들은 곧잘 시합을 한다. 팽이를 세게 쳐서 상대방의 팽이와 설 부딪치게 해서 쓰러지는 편이 진다. 소년들은 팽이와 팽이채를 가지고 다니면서 심심하면 마당에서 치고 논다. 팽이치기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어린시절에 즐겨 하던 놀이로 우리고장 어디에서나 찾아 볼수 있었다.

(6) 돈치기

정초에 청소년들은 돈치기를 한다. 돈치기는 앞마당이나 또는 평평한 곳에서 3미터쯤 거리에 금을 긋고, 동전을 그금이 넘게 던져서 금에 가까이 던진 사람 순서로 목자를 던져서 돈을 치면 따먹게 되는 놀이이다.

(7) 연날리기

정초 청소년들의 놀이로 연날리기가 있다. 대개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연을 만들어 날리었으나 요즘은 연날리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연은 창호지나 백지와 대나무로 만든다. 우리 지방에서 흔히 만들어 날리는 연은 방패연, 가오리연, 홍어연이 있는데 방패연은 어른들과 같이 만들고 가오리연과 홍어연은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 날린다. 방패연 제작은 종이의 종양을 도려내어 구멍을 내고 대나무 다섯 개를 가늘게 깎아 연 살을 만들고 종이를 붙이고 연 이마를 실로 졸라매어 반원형으로 하고 양쪽머리와 아래쪽 두 곳에 연실을 매어 바람에 말려 띄운다. 연을 날리는 장소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는 않지만 연을 날리다 보면 아이들이 모인 장소가 연을 날리는 장소인데 이는 대개 마을의 뒷동산이 된다. 이곳에서 마을쪽이나 들관쪽으로 연을 띄우게 된다.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연줄이 필요한데 연줄은 대개 모시를 삼고 남은 자투리를 이용하여 만든 줄을 이용했고 이 연줄을 감는 것을 자새라고도 하고 또는 열레라고도 한다. 연자새에 줄을 감아 바람에 연이 나는 대로 실을 주었다 감았다 한다. 연을 잘 날리려면 연의 목줄을 잘 매어야 하는데 좌우로 기울지 않도록 하고 상하로 약간 기울도록 하여야 한다. 연의 목줄을 잘 매고 못 매는 것에 따라 연을 잘 띄우고 가 판가름된다. 때로 연싸움을 하기도 하는데 서로 연줄을 감아 실이 끊어지는 편이 진다. 연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유리나 사기를 곱게 뿜아서 만든 가루를 밥풀에 개어 연실에 바르기도 한다. 그러면 연실에 유리나 사기의 가루가 날카롭게 붙어 있어 상대방의 연실이 잘 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겨우내 날리던 연은 정월 대보름날에 날려보낸다. 이를 액막이 한다고 하는데 연에다 「송액」 또는 「송액영복」 등의 글씨를 써서 하늘 높이 띄운 다음 연줄을 끊어 버린다.

(8) 쥐불놀이

열나흘날 상원(보름날) 밤에 농가에서는 밭둑 논둑을 불태우는데 이것을 쥐불놀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잡귀를 쫓고 풍작을 거두고 1년 동안 무병하고 액을 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은 강통에 광솔을 넣고 불을 지펴 아이들이 강통을 돌리지만 강통 구하기가 어렵던 시절에는 짚을 총총히 묶어 들고 다니며 놀았다. 간혹 그 짚묶음에 말린 닭똥을 넣으면 불꽃이 튀어 다른 아이와는 색다르게 보였다. 보름 저날 밤에 횃불을 만들어 쥐불놀이를 하였다. 이때에 횃불로는 싸리비 또는 비처럼 쑥대를 총총히 묶은 다음 다발을 사용하였다.

쥐불을 지펴 놓고 자기 나이 만큼 뛰어 넘어야 그 해 액운이 없기에 열나흘날 저녁에는 동네 아이들이 모두 들판에 나가 쥐불을 놓고 뛰어 넘는다.

강통이 없던 시절 대비자루나 짚을 길게 묶어 횃불을 만들어 불을 이리저리 옮겨 논둑을 태웠다.

열나흘날 저녁에 쥐불을 놓고 세 번 뛰어 넘어야 시집가서 그릇을 깨지 않고 살림을 잘한다. 여자가 새고기를 먹으면 시집가서 그릇을 깬다고 하여 먹지 않는다.

Ⅱ . 세시 미풍양속(歲時美風良俗)

(1) 차례 (茶禮)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몸을 깨끗이 하고 새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종가집에 모여서 세찬(歲饌) 세주(歲酒)를 마련하여 제상에 진설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사당은 장손이 모신다. 4대조의 신주를 모셔 두며 5대 넘은 신주는 각기 분묘 옆에 묻어 집에서는 지내지 않고 1년에 한번 10월 시제 때만 제사를 지낸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미리 준비한 제물을 성의껏 마련하여 조상께 새해 인사를 한다. 이를 통하여 가정의 단합, 화목, 질서를 유지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한다.

정월 초하루 차례를 위하여 그믐전날 목욕제계하고 그믐날에 머리를 감는다. 이는 제물을 준비하는 동안 머리카락이 빠져 차례에 욕되지 않을까 하여 미리부터 정성스럽게 조깅하는 것이다. 아침 차례후 제상에 올린 냉수를 무서움을 타는 아이에게 준다. 이 물을 마시면 겁을 먹지 않게 된다고 믿었다.

(2) 세배 (歲拜)

새해 첫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절을 하는데 이를 세배라고 한다. 차례가 끝난후 모두 연령별로 세배를 한다. 위 분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순으로 세배를 드리게 된다. 세배를 받은 측에서는 어른들에게 술과 음식을 아이에게는 떡, 과일, 돈으로 대접하며 정답을 나누는데 일가 어른이 먼곳에 상더라도 수십리 길을 찾아서라도 세배를 드리는 것이 예의이며 아주 먼곳일때는 정월 십오일까지 찾아가서 세배하면 인사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3) 성묘 (省墓)

성묘는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상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살피는 의식의 하나다.

아침식사 후 집안 식구들이 주과포를 가지고 선산으로 간다. 선산에 가면서 선조의 업적이나 집안 내력을 말하기도 하고 앞으로 선산의 문제(선일)를 나누며 간다. 선산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위하여 어느 할아버지의 묘소라고 설명을 해주고 업적이나 일화를 말해준다. 주과포를 진설하고 재배하고 묘소를 돌아 본 다음에 돌아온다.

(4) 덕담 (德談)

정초에 어른이나 친구를 만나면 말로써 새해 인사를 나누는데 이를 덕담이라고 한다. 새해를 맞이하여 서로 복을 빌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덕담으로 축의(축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Ⅲ. 세시 전승민속(歲時傳承民俗)

(1) 복조리

섣달 그믐날 자정이 지나면 복조리 장수들이 조리를 팔러 다니는데 이때 각 가정에서는 일년 동안 소용되는 수량 만큼의 복조리를 산다. 또 이 조리는 일찍 살수록 좋다고 믿고 있어서 서로 남보다 먼저 사려고 하며 설날 이른 새벽에 조리를 사 두면 일년 동안 복을 많이 받는다는 데서 설날 산 조리를 복조리라 부른다.

산 조리를 한데 묶어 안방 출입문 위쪽이나 부엌에 매달아 두었다가 쓰며 조리 속에 돈과 엿, 성냥을 넣어두면 더욱 좋다고 해서 그렇게 들 한다.

그러나 도정기의 발달로 쌀에 돌이 없어져 수요가 줄어 들었고 상술이 발달해서 조리 장수들이 밤에 상가를 방문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음식점이나 민속주점 같은 곳에서 실내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설 (원단:元旦)

설(元旦)은 일년의 첫날로 세수(勢首) 또는 연수(年壽)라고 하며 「설」, 「설날」, 「설명절」, 「구정」이라고도 부른다. 1년의 운수는 그 첫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몸과 마음의 근신을 하였다. 「설」을 신일(신일)이라 하여 경거망동을 삼간다.

(3) 설빔 (歲粧)

설날 아침 세수한 후에 미리 준비해 놓은 새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한다. 설빔의 옷을 「설옷」, 복식(服食)을 합하여 「설치레」라고 한다. 설빔을 한 후 정초 차례에 들어간다. 설빔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따라 정도에 맞게 준비하는데 가을에 미리 옷감을 준비하여 짓기도 한다. 어른은 새로 복식을 장만하고 추위를 견디기 위해 바지저고리에 헛솜을 넣는다.

(4) 떡국과 시루떡

시루떡은 멥쌀가루를 시루 안에 팔과 겹겹이 펴고 솥에 시루를 걸어 찌먹는 떡이다. 이때 시루 구멍은 무를 잘라 메우고 솥과 시루사이에는 밀가루를 반죽하여 빙 둘러 붙여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떡국은 설명절에 멥쌀을 찌어서 <가래떡>을 만들어 얇게 썰어서 장국에 넣고 쇠고기나 닭고기를 넣어 끓인 것을 떡국이라 한다. 예전에는 꿩고기를 넣었다.

(5) 소발(燒髮)

정월 초하룻날 밤에 일년 동안 머리 빗을 때에 빠진 머리카락을 빗집에 차곡차곡 모아 두었다가 불에 사른다. 이는 부모에게 물려 받은 머리카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뜻이 있으며, 이렇게 일년 내 모아 두었던 머리를 사르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6) 야광귀

설날 밤에 하늘에 있는 야광귀란 귀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인가에 들어와 사람의 신을 신어 보아서 발에 맞는 것이 있으면 신고 간다고 한다. 이때 야광귀에게 도적을 맞는 사람은 그해 일년동안 운수가 나쁘다고 전한다. 그래서 설날 밤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수 신을 방에 들여놓거나 다락에 넣어두어 야광귀가 신을 찾지 못하게 한다. 이야광귀를 막기 위하여 밤이 되면 일찍 대문을 잠그고, 금줄을 치고 딱총을 놓기도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문에 체를 걸어두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야광귀가 내려오다가 체를 발견하고 체 눈이 많으므로 몇개나 되나 세고 다시 세고 하는 사이에 날이 밝아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미처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늘로 되올라 간다고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처녀 또는 총각이 죽었을 때 사람이 많이 오가는 삼거리에 묻고 체를 위에 올려놓고 흙을 살짝 덮어 놓으므로 귀신이 되어 바깥세상으로 나오려 할 때 체의 눈을 세려고 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이 체를 건드려 다시 세고 다시 세고 하다 결국 귀신이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7) 입춘첩 (立春帖)

입춘날 입춘시가 들 때 축원의 뜻을 쓴 글귀를 창호지에 써서 대문이나 안청의 문, 기둥, 대들보에 붙인다. 이렇게 하면 「굿 한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한다. 이는 문구의 내용 대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여 써 붙이는 것이다.

입춘문은 대개 정해져 있으나 가장 널리 씌여지는 입춘 문은 다음과 같다. 「立春大吉」, 「建陽多慶」, 「家給人民」, 「掃地黃金出」, 「開門萬福來」, 「父母千年壽」, 「子孫萬世榮」, 「千增歲月人增壽」, 「春萬乾坤福滿家」, 「門迎春夏秋冬福」, 「戶納東西南北財」

옛날 대궐에서는 내전의 기둥과 난간에 원단(元旦)에 문신들이 지은 연상시(延祥詩) 중에서 좋은 것을 뽑아서 써 붙였는데 이를 춘첩자(春帖子)라고 불렀다.

〈입춘서〉

○ 外閨 (안채 문 바깥쪽 위)

立春大吉
建陽多慶
堂山父母千年壽
膝下子孫萬世榮

○ 上房 (창, 문의 상부)

願得三山不老草
拜獻高堂鶴髮親

○ 柱 (기둥)

春回禹貢山川外
人在僥舜雨露中
富貴春花雨後紅

○ 부엌문

馨出高門行白玉
菜傳纖手送青絲

○ 內廟門 (사당문 안쪽 위)

和氣自生君子宅
春光先到吉人家

○ 外廟門 (사당문 바깥쪽 위)

人誰敢侮修身士
天下能窮力穡家

○ 內閨 (안채문 안쪽 위)

春祝歲在癸酉萬事亨通

○ 大門

虎, 龍
戶納東西南北敗
門入春夏秋冬福

(8) 맥근점 (麥根占)

입춘 때쯤 되면 보라가 발육하는데 이때 보리밭에 나가 보리를 뽑아 보면 뿌리가 많으면 보리가 자리를 잘 잡고 있어 풍년이 들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뿌리가 길면 추위가 많이 들고 짧으면 덜 든다고도 한다.

(9) 보름새기

섣달 그믐날의 제야(除夜)처럼 14일 밤에 밤새도록 온 집안에 불을 밝히고 잠을 잔다.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며 아이들이 잠들면 밀가루를 눈썹에 칠해 놓기도 한다. 이를 보름새기라 한다.

(10) 거리제

열나흘날 밤에 길에서 하는 것으로 짚을 십자로 놓고 떡과 밥 나물 등을 길가에 가지고 나와 치성드린다. 밥 3그릇, 나물 3가지, 명태 1마리, 삼색실과 촛불(초가 없으면 들기름을 접시에 담아 심지를 만들어 가지고 감), 소지, 돈, 벗짚 등을 가지고 세거리에 나가 짚을 삼발나게 놓고(X자로 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은 다음 사방으로 절한 후 소지를 올리면서 만사 태

평하게 해 달라고 빈다. 그후 가지고 간 돈을 벋짚 밑에 놓고 나머지 제물을 일부 떼어놓고 돌아온다.

(11) 상차리기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상을 차린다. 성주를 모신곳, 조왕신(부엌), 당산(장광), 토지신(마당), 용왕(샘)이 있는곳에 정성껏 제물을 차려 놓는다. 성주신에게는 밥상에 받쳐 국 메 숟가락 젓가락을 놓아 상을 차리고 나머지 장소에는 메와 국만 쟁반에 차려 놓아둔다. 마당에는 가운데에 놓는다. 이때 방에만 상을 차려 밥, 국, 수저, 젓가락을 놓고 나머지는 상없이 밥과 국만 떠놓는다.

(12) 개 보름 쇠기

대보름날에는 온종일 먹이를 주지 않고 굶긴다. 대보름날 개에게 밥을 주면 개가 마를 뿐 아니라, 파리가 끼어 더러워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개밥을 주면 그해 사람 먹을 것이 없다고 여겼다. 이는 곧 흉년이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3) 진대맥이

보름날 일찍 일어나 집 사방에 소금을 뿌리며 「진대저린다. 진대저린다」라고 주언한다. 그렇게 하면 집안에 뱀이 들어오지 않는다.

(14) 화재맥이

열나흘날 저녁에 쌀 뜯물을 미리 받아 놓았다가 보름날 아침에 일어나 사방(집의 네 귀퉁이)에 부으며 「화재맥이다. 화재맥이다」를 주언한다. 이렇게 하면 일년동안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15) 소 · 개 더위방지

보름날 아침에 원새끼를 꼬아 소 목에 걸어주거나 복숭아 나뭇가지를 꺾어서 둥그렇게 만들어 개 · 소의 목에 걸어준다. 이렇게 하면 여름에 소가 더위를 타지 않는다.

(16) 부럽

상원날(보름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식사전에 밤, 잣, 호두, 은행 등을 깨물어서 먹는다. 여러번 깨물지말고 단번에 깨무는 것이 좋다고 하여 깨우는데 이렇게 하면 1년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을 뿐아니라 이가 단단해진다고 한다.

(17) 귀 밝이술 (耳明酒)

상원날 이른 아침에 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해서 모두 술을 한잔씩 마신다. 이때 술

을 데우지 않고 차게 해서 마시며 부녀자들도 마신다. 그리고 두부를 먹는다. 술은 좋은 소식을 들으라는 의미가 있고 두부는 살찌라고 먹는다.

(18) 백가반 (百家飯)

정월 열나흘날에는 세 집 이상의 타성집 밥을 먹어야 그해의 액운이 사라진 운수가 좋다고 한다. 많이 먹는다는 것조차 먹는 시늉이라고 내어서 이웃간의 친숙한 뜻을 나타낸다.

보름날에는 밥 아홉 그릇 먹고, 나무 아홉 짐하고, 두엄 아홉번 내야 한다. 또한 보름날은 찬밥을 먹거나 매운 것을 먹어서는 안된다. 여러 집의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남자가 여장을 하고 바가지를 들고 밥을 얻어 오면 밤에 웃놀이를 하다가 간식으로 무김치와 먹는다.

(19) 소밥주기

상원날 아침 일찍 소에게 밥과 나물을 차려 준다. 이때에 소가 무엇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年事를 점친다.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농사가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믿는다.

(20) 더위팔기 (賣暑)

정월 15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람을 보면 아무개하고 급히 부른다. 상대방이 얼떨결에 대답을 하면 「내더위」 하고 더위를 파는데 이렇게 하면 그 해에는 더위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때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먼저더위」 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여름에 더위를 먹게 된다.

(21) 지신밟기

정월 보름날 농민들 사이에는 일종의 가장행렬로 자신을 위로하는 민속놀이인 지신밟기가 행해진다. 이렇게 지신을 밟으면 1년동안 지신의 덕을 받아 복이 있다고 한다. 이때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사물을 치는데 먼저 마당, 부엌, 당산(장광), 다시 마당 순으로 치고 주인이 마련한 술상에 절을 하고 술을 마신다. 이것을 「터다진다」 라고 하여 그 집의 부정을 막는 것이다. 이때 주인은 쌀을 내놓는데 이는 마루에 돛자리를 펴고 상을 놓고 그위에 쌀을 수북히 놓고 가운데에 촛불을 밝힌다. 그 옆에는 정화를 한 그릇을 떠놓는다. 상위에 놓은 쌀을 「꽃 밭 쌀」이라고 하여 풍물 군들이 모두 가져가 마을 기금이나 풍물 장만 비용으로 사용한다.

◆ 예산군 지정문화재 총괄표

1997년 12월 23일 현재

지정구분	종별	지정수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1
	보물	5
	사적	2
	천연기념물	1
	중요민속자료	3
	소계	12
충청남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10
	무형문화재	1
	기념물	10
	문화재자료	27
	소계	48
	합계	60

예산군 지정문화재 목록

국가지정문화재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수량면적 보유종별	소유자 보유자	소재지주소	지정일	관리단체 관리의무자	비 고
국 보	49	수덕사대웅전	1동	수덕사 대웅전	덕산면 사천리 산 4-1	1962. 12. 20	수덕사	1936. 5. 23 (최초지정일)
보 물	508	예산삼교석조보살입상	1기	국유	삼교읍 신리 산16	1969. 6. 21	예산군	
	547	예산김정희종가유물 (1)김정희유물 ①김정희인장 ②수정염주 ③보제염주 ④운용문단계연 ⑤유명연 ⑥도찬문연 ⑦모필 (2)김정희유물 ②순우장하승비임본 ③표지 (을묘칠정) (금칠십제) ④척독초본 ⑤표제 (십삼년정미) ⑥사공도시평첩 ⑦표제 (상지십년용집협흡) ⑧표제 (충술근수교, 훈묵기헌진장) ⑨소재첩 ⑩상지이십삼년계미 (3)김정희서금반첩 (5)김정희영정	일괄 31과 1건 (108개) 1건 (2개) 1개 1개 1개 7병 14장 1장 1장 1장 1장 1장 1장 1장 1장 1책13장 1첩 1폭	김성기	신암면 용궁리 789 (국립중앙박물관보관)	1971. 7. 7	김성기	(2)의①은 서울, (4)는 경기

	568	윤봉길의사유품 (3)회중시계 (4)지갑부 중국화폐 (5)윤봉길의사인 (6)손수건 (7)안경집 (8)일기 (9)일진회창립취지서 (10)농민독본 (11)형틀대 (12)편지	13종 (10종) 1개 지갑1개 화폐10점 1개 1매 1개 1책27매 (각10행) 12매 (10행 19자) 2권 (프린트) 1개 4신	윤주웅	덕산면 시랑리 139 총의사	1972. 8. 16	윤주웅	(1)(2)(13)은 서울
	794	예산화전리사면석불	1기	국유	봉산면 화전리 61	1984. 11. 30	예산군	
	1263	수덕사노사 4불괘4불정	1폭	수덕사	덕산면 사천리 산20	1997. 8. 8	수덕사	
사 적	90	대흥임존성	937,686㎡	국유	대흥면 상중리 산8	1963. 1. 21	예산군	1940. 7. 31
	229	매헌윤봉길의사 사적지	147,072㎡	사유	덕산면 시랑리 40-1	1972. 10. 14	예산군	
천 연 기 념 물	106	예산의 백송	1주30㎡	사유	신암면 용궁리 산73-28	1996. 12. 3	김석환	

중요민속자료	30	보부상유품				1976. 5. 21		(1)~(7), (9)~(13)은 부여
		(8)보부상유품	일괄	예 덕 상무사	덕산면 읍내리 350 (덕산면사무소보관)	1976. 5. 21	덕산면 사무소	(14)는 홍성
		①인	7과					(15)는 경북
		①충남예당상무지사	1과					
		②상무사충청남도예산군지부	1과					
		③상무사충청남도예산군지부	1과					
		④영위의직인	1과					
		⑤반수의직인	1과					
		⑥접장의직인	1과					
		⑦인통	1개					
		②청사초롱절구	1조 (2개)					
		③공문	16책					
		①예산임방절목부한성부완문 (1851년)	1책					
		②임소좌목 (1881년)	1책					
		③예산임소좌목 (1885년)	1책					
		④선생안 (1885년)	1책					
		⑤의정부완문 (1886년)	1책					
		⑥보상선생안 (1881년)	1책					
		⑦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 (1892년)	1책					
		⑧예산임소좌목 (1905년)	1책					
		⑨예산보상임소좌목 (1906년)	1책					
		⑩예산보상임소좌목 (1907년)	1책					
		⑪예산보상임소좌목 (1908년)	1책					
		⑫덕산본소임방좌목 (미상)	1책					
		⑬예산본방장내좌목 (미상)	1책					
		⑭덕산본방장내좌목 (미상)	1책					
		⑮선생안 (미상)	1책					
		⑯절 목 (미상)	1책					
		(14)보부상유품(4)						
		(나)비						
		⑤원흥주6군상무사임선생 인손지묘비	1기	원흥주 육군 상무사	광시면 가덕리 448-6	1992. 7. 24	원흥주 육군 상무사	
	31	남은들상여	1습	광천리 부락민	덕산면 광천리	1974. 3. 15	광천리 부락민	
	191	예산정동호가옥	1곽	정동호	고덕면 오추리 668	1984. 12. 24	정동호	
		(1)안채						
		(2)사랑방						
		(3)고방채						

충청남도지정문화재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수량면적 보유종별	소유자 보유자	소 재 지 주 소	지 정 일	관리단체 관리의무자	비고
이성민문화재	43	김정희선생고택 (안채·사랑채)	2등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799-2	1976. 1. 8	추사고택 관리소	
	41	김정희선생유물 〈훈서지·생원시권 ·농상지실〉	3점	사유	"	"	김성기	
	45	화순옹주홍문	1동	사유	"	"	"	
	68	이남규선생고택	3동	사유	대술면 상항리	1976. 7. 7	이승복	
	69	예산상항리석불	1구	국유	대술면 상항리 332-2	1976. 10. 14	예산군	
	83	이광임선생고택	1구	사유	대술면 방산리 344	1978. 12. 30	이항복	
	102	예산이성만형제효제비	1기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106-2	1983. 9. 29	예산군	
	103	수덕사3층석탑	1기	수덕사	덕산면 사천리	1983. 9. 29	수덕사	
	127	전일상영정및유도	2점	전용국	고덕면 호음리 22	1987. 12. 30	전용국	
	145	보덕사극락전	1동	보덕사	덕산면 상가리 277	1995. 10. 7	보덕사	
무형문화재	18	소목장	전통창호 제작	조찬형	덕산면 읍내리 226	1996. 2. 27		
기념물	24	김정희선생유적	18,308㎡	충청남도	신암면 용궁리 799외13필	1980. 10. 23	예산군	
	29	최익현선생묘	330㎡	사유	광시면 관음리 산21	1982. 8. 3	최창규	
	30	예산산성	650㎡	사유	예산읍 산성리	"	예산군	
	66	예산호서은행본점	1동	충청은행 (예산지점)	예산읍 예산리 482	1987. 12. 30	충청은행 (예산지점)	
	80	남연군의묘	5,590㎡	이청	덕산면 상가리 산5-28	1989. 12. 29	예산군	
	90	도응선생묘일원	15,188㎡ (2필)	성주도씨 청송당종중	응봉면 지석리 산141-16 외1필	1993. 11. 12	성주도씨 청송당종중	
	103	이응노선생사적지	1,504㎡	이종진	덕산면 사천리 산41	1996. 11. 30	이종진	
	136	대흥향교	3,464㎡	충남향교 재단	대흥면 교촌리 538	1997. 12. 23	대흥향교	
	137	덕산향교	2,110㎡	"	덕산면 사동리 121	"	덕산향교	
	138	예산향교	2,731㎡	"	예산읍 향천리 132-1	"	예산향교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수량면적 보유종별	소유자 보유자	소 재 지 주 소	지 정 일	관리단체 관리의무자	비고
문 화 재 자 료	173	향천사 천불전	1동	향천사	예산읍 향천리 60	1984. 5. 17	향천사	
	174	향천사9층석탑	1기	향천사	예산읍 향천리 57	"	향천사	
	175	예산읍3층석탑	1기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	예산군	
	176	장복리3층석탑	1기	예산군	대술면 장복리 24	"	예산군	
	177	대련사원통보전	1동	대련사	광시면 동산리 11	"	대련사	
	178	대련사3층석탑	1기	대련사	광시면 동산리 11	"	대련사	
	179	향천사부도	2기	향천사	예산읍 향천리 57	"	향천사	
	180	간양리당간지주	1기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18	"	예산군	
	181	수덕사7층석탑	1기	수덕사	덕산면 사천리 20	"	수덕사	
	182	상가리미륵불	1구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25	"	예산군	
	183	보덕사석등	1기	보덕사	덕산면 상가리 227	"	보덕사	
	184	석곡리석탑	1기	예산군	고덕면 석곡리 467-12	"	예산군	
	185	석곡리미륵불	1구	예산군	고덕면 석곡리 467	"	예산군	
	186	이의배신도비	1기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산5-1	"	예산군	
	188	김정희묘	1기	김성호	신암면 용궁리	"	김성호	
	189	월성위김한신묘	1기	김성호	신암면 용궁리	"	김성호	
	190	덕산온천 지구유	1기	이한경	덕산면 사동리 15	"	이한경	
	191	남연군비	1기	전주이씨문중	덕산면 상가리 107-1	"	전주이씨문중	
	192	수덕사유물(거문고)	1점	수덕사	덕산면 사천리 20	"	수덕사	
	282	이억장군정려	1동	경주이씨종중	봉산면 금치리 110-6	1986. 11. 19	경주이씨종중	
	284	조익선생묘	97,887㎡	풍양조씨 포저공종중	신양면 신양리 산33-1	1987. 12. 30	조순묵	
	285	정대영가옥	1동	정대영	봉산면 봉림리 255	"	정대영	
	286	박기성가옥	2동	박기성	대흥면 하탄방리 102	"	박기성	
	287	이한직가옥	1동	이한직	대흥면 동서리 139	"	이한직	
	319	강민첨장군묘	147,174㎡	진주강씨	대흥면 이치리 산34	1990. 12. 31	강태생	
	331	조익선생묘지	16개	풍양조씨 포저공과	신양면 신양리	1994. 11. 4	풍양조씨 포저공과	
	353	김한종의사생가지	1,018㎡	김경식	광시면 신흥리 70	1996. 11. 30	김경식	

추사고택(秋史故宅)

◎ 추사 김정희선생(金正喜先生) 유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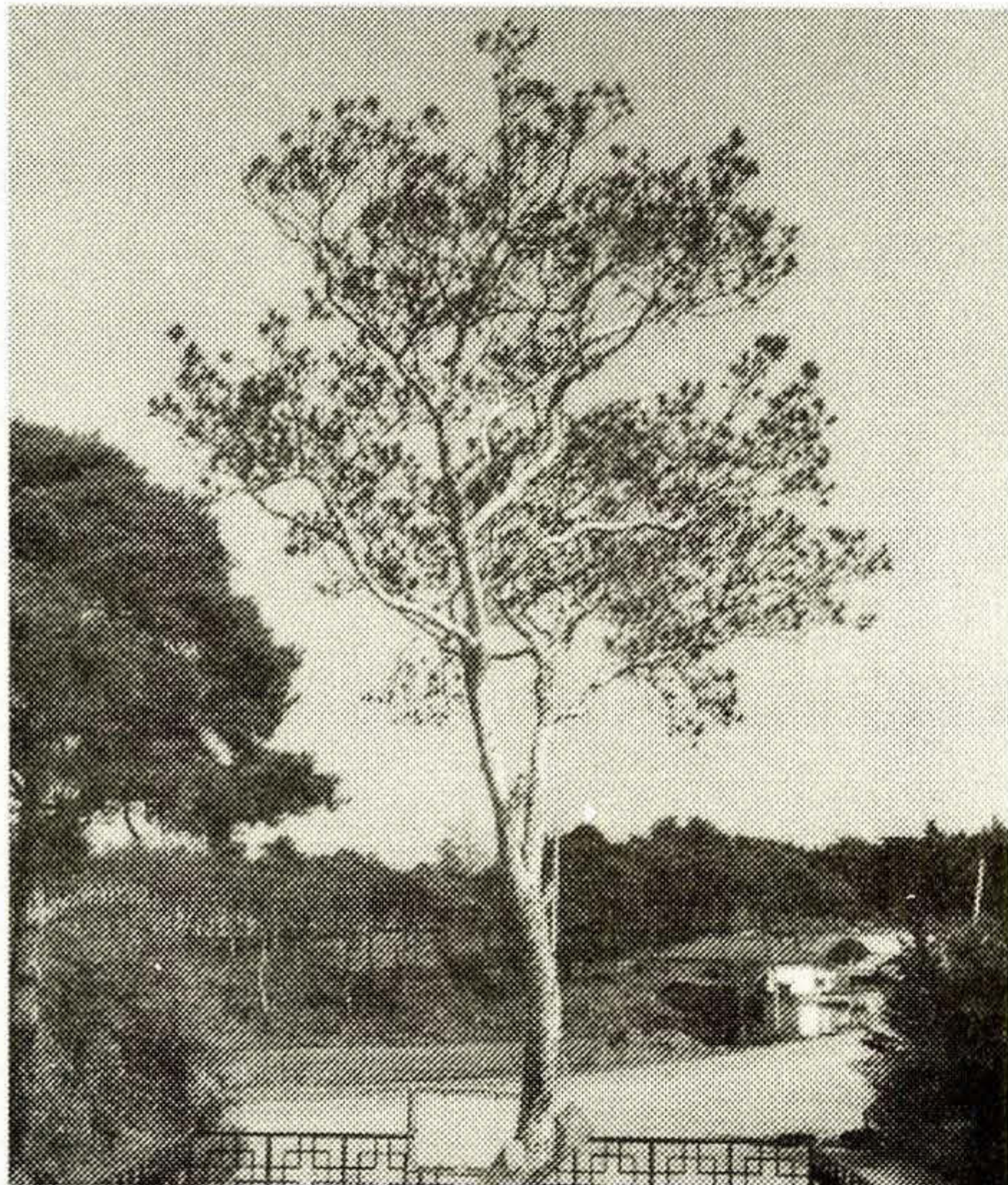
一, 추사고택 연혁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추사고택 일원(一圓)은 조선후기의 실학자이며 대표적 서예가이었던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적지로서 이곳에는 김정희선생고택(유형문화재 제43호)과 예산의백송(천연기념물 제106호), 화순옹주홍문(유형문화재 제45호), 김정희묘(문화재자료 제188호), 그리고 월성위김한신묘(문화재자료 제189호)가 있으며 인근에는 추사 선생이 수도(修道)하던 화암사가 있다.

고택은 추사선생의 증조부인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薰)이 건립한 것으로 18세기 중엽의 건축물로서 당시의 전형적인 상류주택으로 후손이 세거(世居)해오다가 1968년 타인에게 매도된 것을 1976년 1월 9일 충청남도에서 유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하고 같은 해 4월 25일 매수(買受)하였다. 그 후 박정희대통령의 배려로 1976년 9월 4일 유적 정화 및 중수사업을 착공해서 1977년 6월 27일 준공을 보았으며 그해 9월 22일부터 충청남도 추사고택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관리하여 오다가 1980년 1월 1일부터 예산군 추사고택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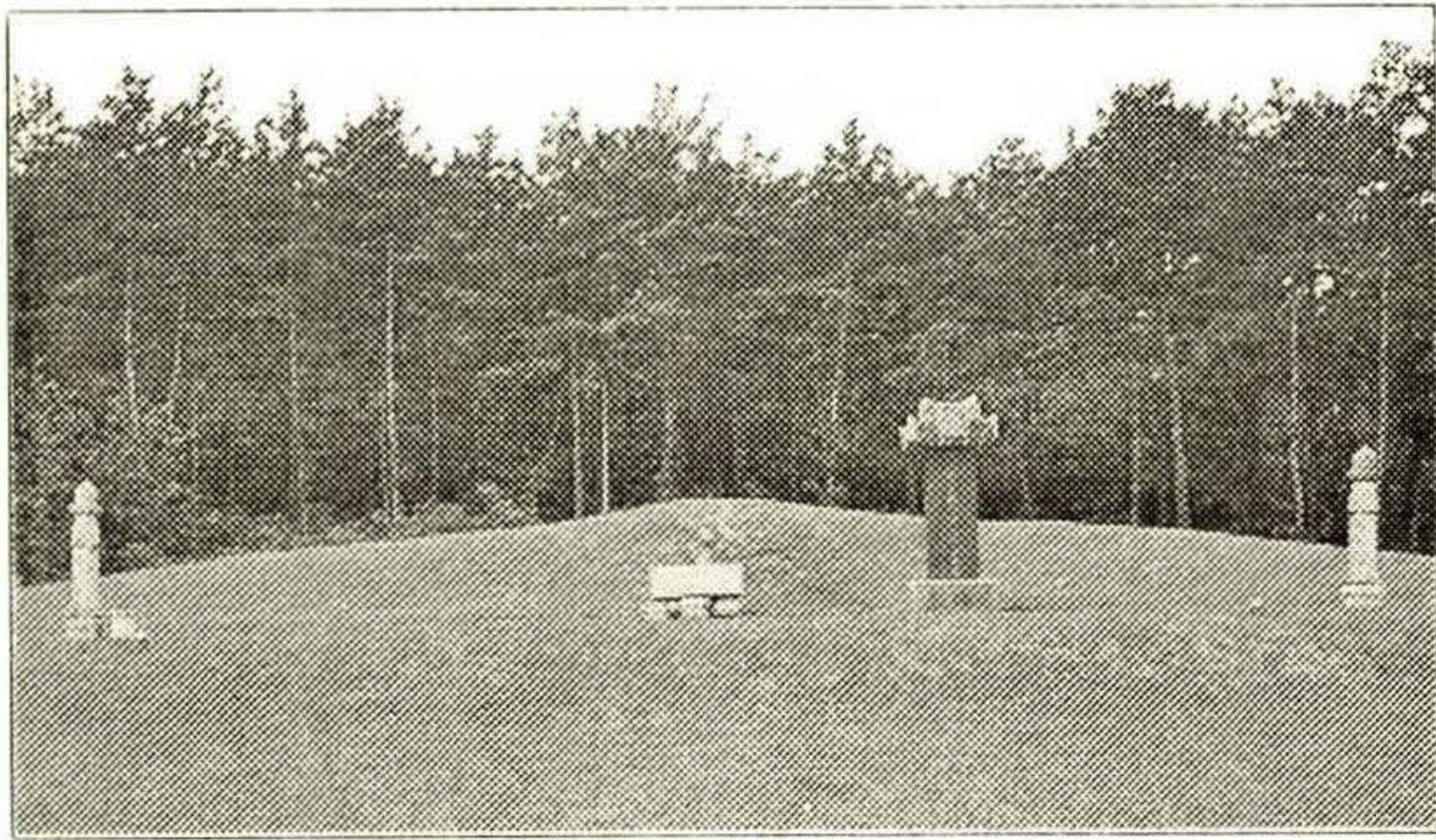
추 사 고 택 (유형문화재 제4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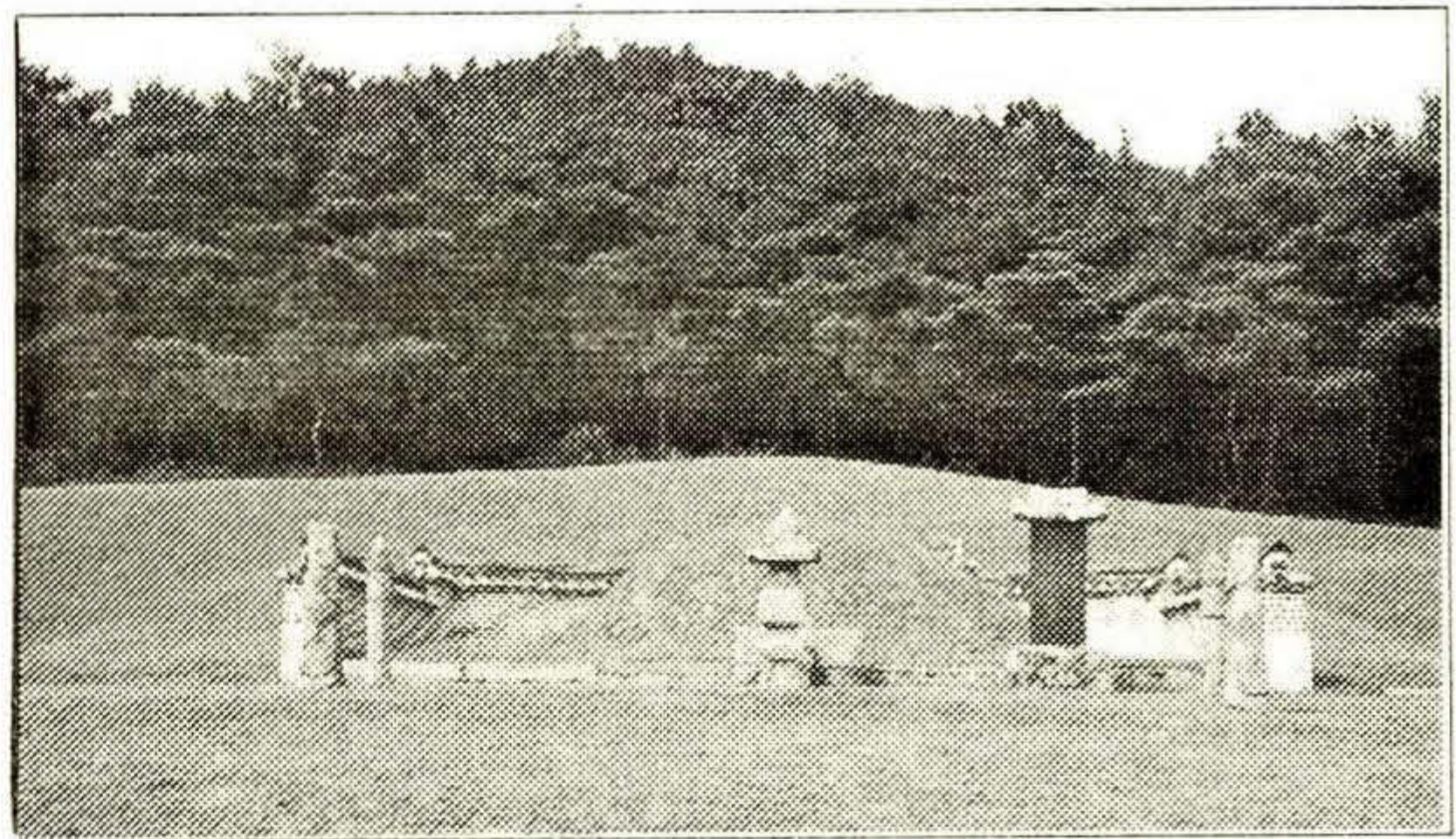
예산의백송(천연기념물 제106호)



화순옹주홍문(유형문화재 제45호)



김정희묘(문화재자료 제188호)



월성위 김한신묘(문화재자료 제189호)

二. 추사(秋史)의 학문(學問)과 예술(藝術)

추사(秋史) 김정희선생(金正喜先生)은 1786년 6월 3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서 영조(英祖)의 부마(駙馬)이신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薰)의 증손(曾孫)이며 병조판서(兵曹判書) 김노경(金魯敬)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伯父) 김노영(金魯永)에게 입양(入養)하였다.

선생은 조선왕조(朝鮮王朝) 후기(後期)의 실학자(實學者)이며 대표적인 서예가(書藝家)로서 벼슬은 병조참판(兵曹參判)과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에 이르렀으며 당시(當時)의 당쟁(黨爭)에 휩쓸려 제주도(濟州島)와 함경도(咸鏡道) 북청(北靑)에서 10여년간 유배생활(流配生活)을 지내고 말년(末年)에 생부(生父) 노경(魯敬)의 묘소(墓所)가 있는 경기도(京畿道) 과천(果川)에서 71세를 일기(一期)로 1856년 10월 10일(철종7년)에 작고(作故)하였다. 선생은 단순(單純)한 서예가(書藝家)에 그치지 않고 시대사조(時代思潮)의 구문화(舊文化) 체제(體制)로 부터 신지식(新知識)의 기수(旗手)로서 새로운 학문(學問)과 사상(思想)을 받아들여 노쇠(老衰)한 조선왕조(朝鮮王朝)의 구문화(舊文化) 체제(體制)를 탈피(脫皮)하여 신문화(新文化) 전개(展開)를 가능(可能)케한 실학자(實學者)인 동시(同時)에 선각자(先覺者)이기도 하다.



화암사(華嚴寺)



추사김정희영정
(보물 제547호)

선생은 북학과(北學派)의 거벽(巨擘)으로 청조(淸朝)의 고증학풍(考證學風)을 도입(導入)하여 학문(學問)으로는 경학(經學), 불교학(佛敎學), 금석학(金石學), 문자학(文字學), 사학(史學), 지리학(地理學), 천문학(天文學)에 이르기까지 박통(博通)하여 북한산(北漢山) 기슭의 비석(碑石)이 신라진흥왕(新羅眞興王)의 순수비(巡狩碑)임을 고증(考證)하였다.

저서(著書)로는 완당집(阮堂集), 금석과안록(金石過眼錄),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 완당척독(阮堂尺牘), 담연제집(潭棼齋集) 등이 있다. 이와같이 광범위(廣範圍)하고 철저(徹底)한 학문(學問)과 천부(天賦)의 재질(才質)을 바탕으로 한 추사(秋史)의 예술(藝術)은 시(詩), 서(書), 화(畵), 전각(篆刻) 등에도 뛰어났으며 서도(書道)는 추사체(秋史體)라는 독자일문(獨者一門)을 열어 서예사상(書藝史上) 지고(至高)의 경지(境地)를 이룩하였다. 作品으로는 『묵란도(墨蘭圖), 묵죽도(墨竹圖)』와 국보(國寶)로 지정(指定)된 『세한도(歲寒圖)』 등이 있다.

三. 추사고택(秋史故宅)과 유적(遺蹟)

추사고택(秋史故宅)은 80.5평으로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문간채, 사당채가 있다. 안채는 6칸(間)대청과 2칸통(間通)의 안방과 건너방이 있고 안방 및 건너방의 부엌과 안대문, 협문, 광 등을 갖춘 ㅁ자형(字型)의 집이다. 안방과 건너방 밖에는 각각 뒷마루가 있고 부엌천정(天井)은 다락으로 되어 있으며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있는 대청은 6칸(間)으로 그리 흔하지 않은 규모(規模)이다. 이러한 ㅁ자형(字型) 가옥(家屋)은 중부지방(中部地方)과 영남지방(嶺南地方)에 분포(分布)되어 있는 이른바 『대갯집』형이다.

사랑채는 바깥 소슬대문을 들어선 마당에 자리잡는 ㄱ자형(字型) 집이다. 원래 사랑채와 안채는 엄격(嚴格)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가택관념(家宅觀念)이었었는데 이는 불교적(佛敎的) 윤리관념(倫理觀念)에 근거(根據)한 것이다. 이 사랑채는 남쪽에 한칸 동쪽에 두칸의 온돌방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대청과 마루로 되어있다. 이와같이 마루공간(空間)이 큰것은 주인공(主人公)의 사회적(社會的) 활동(活動)이나 예술적(藝



해時計(石年)

術的) 활동(活動)을 하는데 요긴(要緊)하게 쓰였을 것이다.

사랑채 뒤편에 석년(石年)이라는 각자(刻字)된 석주(石柱)가 있다. 이 석주(石柱)는 그림자를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測定)하는 『해시계(時計)』로 추사공(秋史公)이 제작(製作)하였다.

화순옹주(和順翁主) 묘(墓)는 추사(秋史)의 증조부(曾祖父)이며 옹주(翁主)의 부군(夫君)이신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璽)의 묘(墓)에 부좌합장(付左合葬)되었다. 정려문(旌閭門)은 추사(秋史) 김정희선생(金正喜先生)의 증조모(曾祖母)인 화순옹주(和順翁主) [영조(英祖)의 2녀]의 정절(貞節)을 기리고자 정조(正祖)가 명정(命旌)한 열녀문(烈女門)이다. 화순옹주(和順翁主)는 부군(夫君)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璽 1720~1758)이 38세의 젊은 나이로 작고(作故)하자 그때부터 식음(食飮)을 전폐(全廢)하여 부왕(父王) 영조(英祖)의 만류에도 불구(不拘)하고 부군(夫君)을 따르고 말았다.

영조(英祖)는 화순옹주(和順翁主)의 정절(貞節)을 기리면서도 부왕(父王)의 뜻을 저버린데 대한 아쉬움 때문에 열녀정문(烈女旌門)을 내리지 않았으나, 후에 정조(正祖)가 명정(命旌)하였다. 화순옹주(和順翁主)는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왕실(王室)에서 나온 유일(唯一)한 열녀(烈女)라고 한다.

추사묘(秋史墓)는 과천(果川)에 안장(安葬)되어 있던것을 1937년 선조(先祖)가 있는 이곳에 이장(移葬)하였다.

백송(白松)은 중국(中國) 북부지방(北部地方)이 원산지(原產地)로 우리나라에는 몇그루 없는 희귀(稀貴)한 수종(樹種)이다. 이 백송(白松)은 추사선생(秋史先生)이 25세때 청(淸)나라 연경(燕京)에서 돌아올때 가지고 와서 고조부(高祖父) 김흥경(金興慶)의 묘입구(墓入口)에 심었던 것으로 원래 밑에서부터 세가지로 갈린 수형(樹形)이었는데 제일 큰 가지는 고사(枯死)하였다.

선생의 서울 본저(本邸)에도 영조(英祖)가 하사(下賜)했다는 백송(白松)이 있어 백송(白松)은 추사선생(秋史先生) 일문(一門)의 상징(象徵)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수령(樹齡)은 약200년이며 높이는 약10m이다.

충의사(忠義祠)

◀ 매헌 윤봉길의사 유적 ▶

一. 연혁(沿革)

1965. 6. 30 : 4.29의거 기념탑 건립
1968. 4. 29 : 윤봉길의사 사우(祠宇) 창건(創建)
1972. 10. 14 : 사적 제229호로 지정
유물은 보물 제568호로 지정
수차의 정화사업을 실시
1974. : 유물전시관과 부흥원 신축
생가와 성장가 및 도중도 복원
1975. 4. 29 : 저한당 경내에 윤봉길의사 동상 건립
1976. 8. 1 : 충청남도 충의사관리사무소 설치
1980. 1. 1 : 예산군 충의사관리사무소로 설치 변경
1984. 4. 29 : 충의관 건립



매헌(梅軒) 윤봉길의사(尹奉吉義士)

二. 윤의사의 생애와 사상

1. 원효봉(元曉峰)의 꿈

윤의사는 가야산줄기 원효봉(元曉峰)의 정기를 타고 1908년 6월 21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랑리 조그마한 초가에서 윤관(尹瓘) 장군의 후예인 파평윤씨 황공(黃公)과 경주 김씨 원상(元祥)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큰 구렁이가 입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태어났다는 윤의사는 날적부터 울음소리가 유달리 컸으며 탐스런 몸매와 용맹스러운 기질을 보고 마을사람들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다.

윤의사는 어릴적부터 기골이 비범하고 영

민했으며 의협심이 강하고 한번 하고자 하는 일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해내고야 마는 무서운 성품이었다.

소년시절의 윤의사는 원효대사(元曉大師)의 발길이 밟혔다는 원효봉의 원효암(元曉庵)과 마을앞 수암산(秀岩山) 5형제 바위에 자주 오르내리며 일제의 억압시대를 개척하려는 야망과 혁명적인 웅지를 기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금도 원효암(元曉庵)에는 윤의사가 즐겨 마셨던 약수터가 남아 있다.

2. 농민운동

윤의사는 어느날 오치서숙(烏峙書塾)에서 글을 읽고 귀가하는 길에 공동묘지에서 무식한 청년이 남의 묘패를 전부 뽑아다가 자기 아버지 묘를 찾아 달라고 조르는 딱한 사정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무식을 추방하자, 무식이야말로 제국주의 일본보다도 더 무서운 강적이다. 왜놈퇴치와 함께 무식의 퇴치 그것은 우리의 2대사명이다.

윤의사는 1926년(19세)에 서숙생활을 마치고 야학회 독서회를 조직하여 농민계몽과 농촌 부흥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윤의사께서는 내마음은 내손으로 서로 돕고 스스로 일어서자. 서로 협동하여 일치단결하자는 캠프 프레이스를 내 걸고 이를 실천하는데 앞장섰다.

1927년 윤의사께서 저술한 농민독본은 당시의 농민구제와 농촌부흥의 꿈을 밝힌 등불이었으며 민족정신과 자주 자립정신을 불러일으켜 조국광복과 애국애족정신을 고취하는 횃불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농촌부흥을 꾀하고자 월진회(月進會)를 조직하고.

첫째 : 농업방식을 개량하여 증산운동을 펴자.

둘째 : 마을공동 구매조합을 만들자.

셋째 : 일본물건을 배척하고 우리 토산품을 애용하자.

넷째 : 양계 양돈 등 부업을 갖고 장려하자.

다섯째 : 생활을 개선하자.

이와같은 실천목표를 설정하고 월진회장직에 추대됨으로서 지금의 새마을운동을 일찍부터 실천한 농촌운동가이기도 하다. 윤의사는 농촌 청년들의 대동단결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하여 수암체육회를 조직하고 청소년들의 체력단련과 정정당당하게 힘과 기를 겨

루는 스포츠정신 개발에도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3. 상해망명과 4. 29의거

윤의사의 이러한 농촌지도 계몽운동이 일제는 독립운동이라 하여 더욱더 탄압하자 1930년 3월 6일 큰뜻을 품고 「丈夫出家生不還」이란 유서를 남기고 망명하여 만주(滿洲)를 거쳐 상해(上海) 임시정부에서 백범(白凡) 김구(金九) 선생을 찾아가 조국에 몸바칠 것을 굳게 결심하였다.

드디어 1932. 4. 29 중국상해홍구공원(中國上海虹口公園)에서 있는 일제의 천장절(天長節) 기념식장을 폭파하여 장렬한 거사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인 하단(河端) 거류민단장과 백천(白川)대장이 죽고 수뇌급 수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우리 한국인의 독립정신을 세계만방에 과시하였다.

윤의사께서는 즉시 일본 관헌에 체포되어 5월 25일 사형선고를 받고 11월 18일 일본 대판(大阪)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2월 19일 김택(金澤) 형무소에서 향년 25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殉國)하였다.

三. 매헌윤봉길의사 사적지

1. 충의사본전

1968년도에 처음 건립하여 1978년에 다시 중건한 윤봉길의사의 영정(影禎)을 봉안한 사당(祠堂)



충의사 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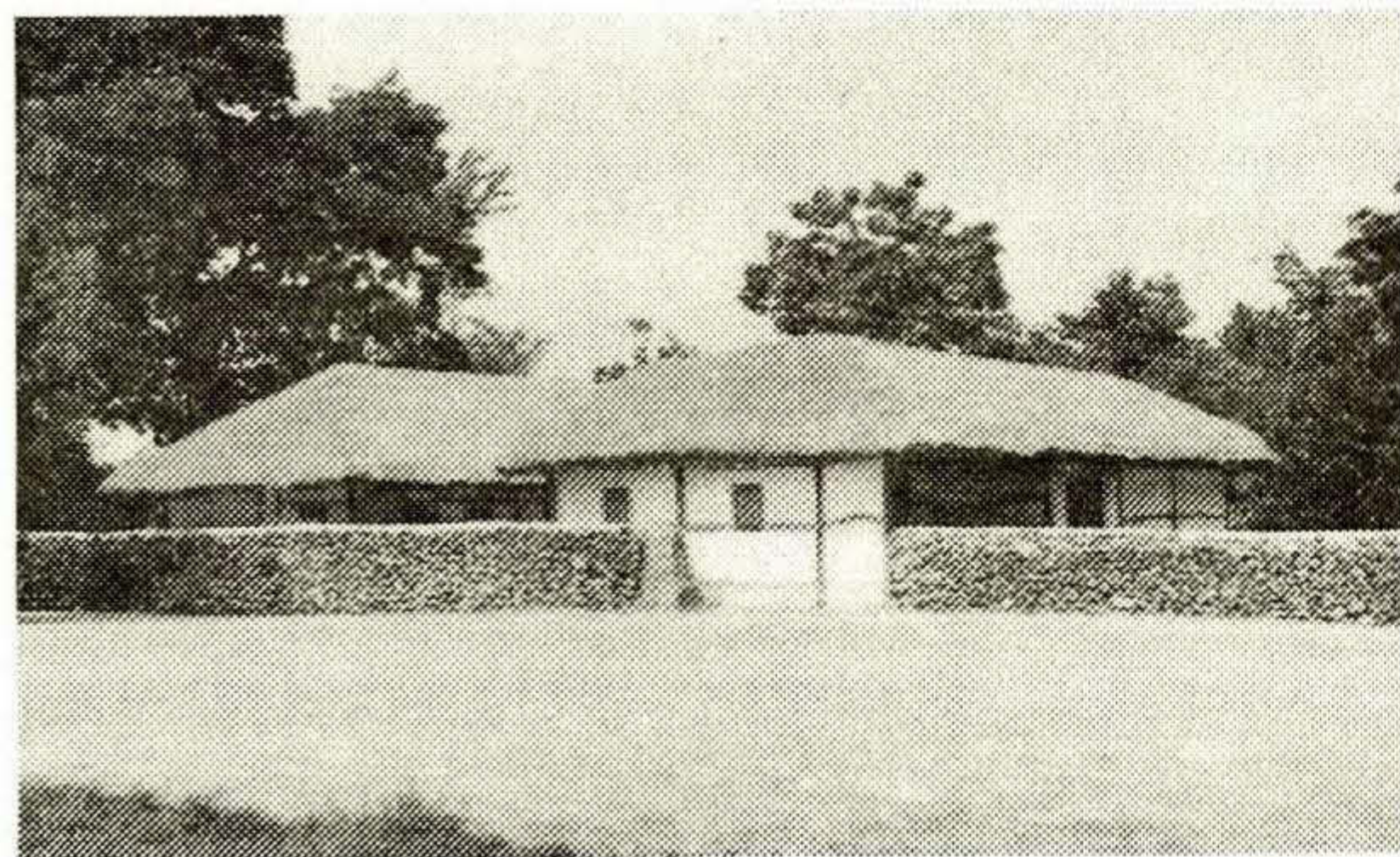


저한당

2. 광현당(光顯堂) — 생가

이집은 윤의사께서 태어나시고 4세까지 사시던 집이다. 이곳은 사방으로 냇물이 흐르고 있으므로 도중도(島中島) (韓半島 가운데 섬이란 뜻)란 이름을 붙였는데 윤의사께서는 여기서 온갖 시름을 달래며 독립운동의 앞날을 설계하고 정신수양을 하였다.

1974년에 국가에서 증수하였다.



광현당

3. 저한당(摺韓堂) — 성장가

이 집은 윤의사의 부친 윤황(尹璜)씨가 1911년 봄(의사나이 4세) 이곳으로 이사하여 사시던 집으로, 1930년 봄 망명길에 오르기 전까지 온갖 민족운동을 펴시던 독립운동의 터전이다.

사적지로 지정되던 1972년 8월까지 윤의사의 유족이 이집에서 살았고 1974년에 국가에서 증수하였다.

4. 부흥원(復興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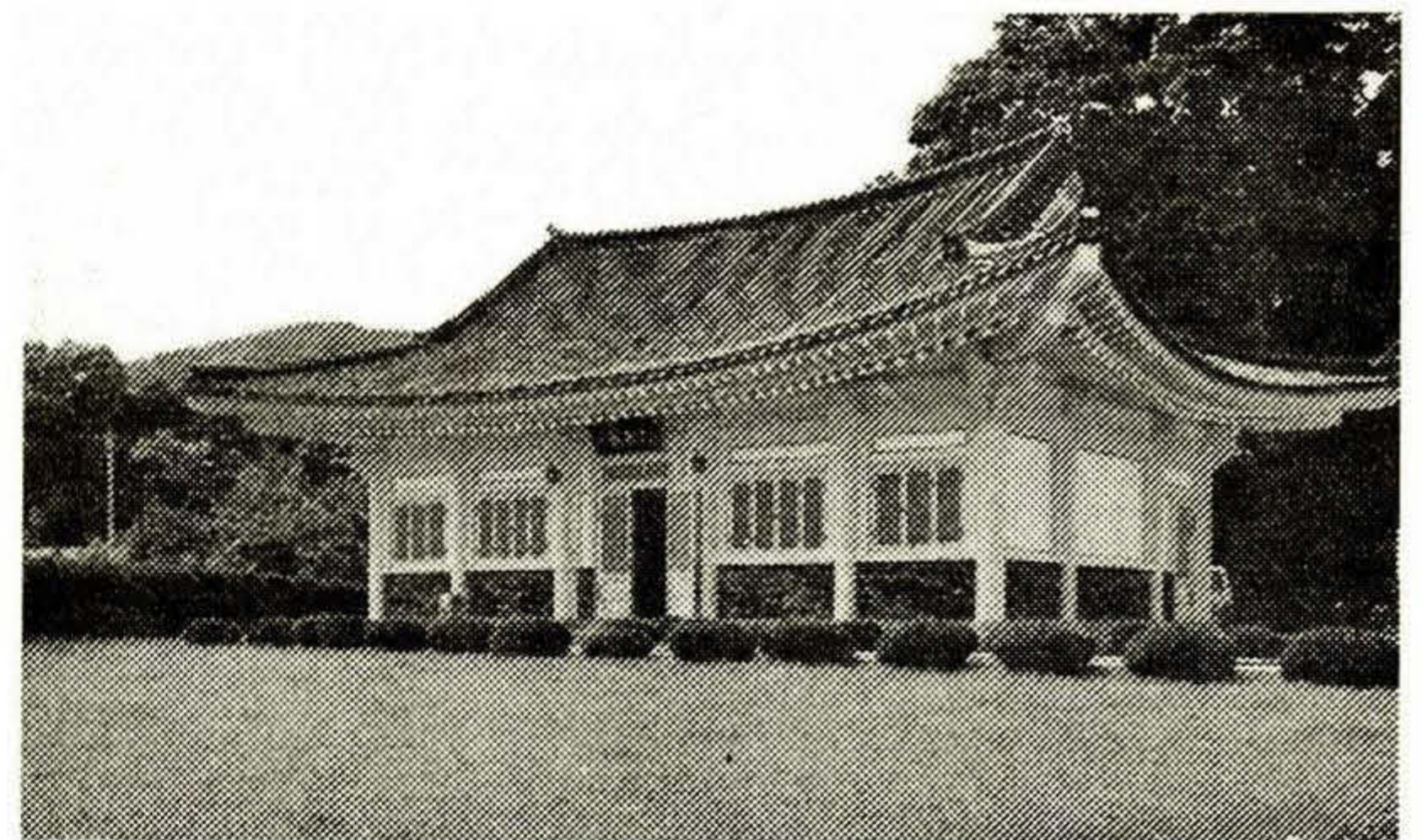
부흥원(復興院)은 윤의사께서 1928년(21세때)에 창설하여 야학회(夜學會) 독서회(讀書會) 월진회(月進會) 등 온갖 농촌계몽운동을 벌이셨던 곳이다.



부흥원

5. 충의관(忠義館)

윤의사의 농촌지도 계몽운동과 4.29의거 장면을 11경도(景圖)에 나타낸 교육장



충의관

지방문화원진흥법

(1994. 1. 7 법률제4718호)
(개정1999. 1.21 법률제5853호)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지방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라 함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 3 조 (지방문화원의 육성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중에 “문화원” 또는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기준)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6 조 (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 99. 1. 21>

제 7 조 (임원) ① 지방문화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인을 포함한 이사 5인이상 30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삭제 99. 1. 21>

제 8 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 9 조 (설립인가의 취소) <삭제 99. 1. 21>

제10조 (청문) <삭제 99. 1. 21>

제11조 (정치관여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 또는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 (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국문화원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문화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의 처리
6. 기타 지역문화원간의 상호 협조 및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1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지도·감독) <삭제 99. 1. 21>

제14조 (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경비의 보조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6조 (재산의 출연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기관의 협조등)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수행에 필요

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직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94. 1. 7)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법률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 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과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그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4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이 이사 및 감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그 잔여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 4 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문화원”을 “지방문화원”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문화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9.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고명칭(壽考名稱)

— 약관 20세에서 백수 100세를 넘어설때 까지 —

- 20세 : 약관(弱冠) — 남자의 나이 '스무살', 또는 스무살 전후를 이르는말
- 30세 : 이립(而立) — 나이 '서른살'을 이르는 말
— 삼십이립(三十而立 : 서른살에 인생관이 서다)이라는 논어(論語)에 수록된 공자의 말에서 유래함.
- 40세 : 불혹(不惑) — 불혹지년(不惑之年)의 준말
— '마흔살'의 나이를 이르는말
— 사십이불혹(四十而不惑 : 사십세가 되면 뜻이 섰기때문에 헤매지 않는다)이라는 論語에 수록된 공자의 말에서 유래한다.
- 50세 : 지천명(知天命) — 자연의 이치와 순리를 안다.
- 60세 : 이순(耳順) — 나이 '예순살'을 이르는말
— 나이 60에야 비로소 모든것을 순리대로 이해한다는 논어(論語)에 수록된 공자의 말에서 유래함.
- 61세 : 환갑(還甲) — 나이 '예순한살'을 이르는말
— 화갑(華甲) 또는 회갑(回甲)이라고도 한다.
— 환갑날 ▶ 환갑이 되는해의 생일
— 갑일(甲日) ▶ 환갑날을 달리 부르는말
- 62세 : 진갑(陳甲) — 환갑의 이듬해, 또는 그해의 생일로서 '묵은(陳 : 묵을진) 환갑'을 이르는말
- 70세 : 고희(古稀) — 사람의 나이 '일흔살'을 달리 이르는말
— 사람의 나이 '일흔살이 된 때'를 달리 이르는말
— 두보(杜甫)의 곡강(曲江)에 나오는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 : 사람의 나이 칠십은 예로부터 드문일)라는 말에서 유래
- 77세 : 희수(喜壽) — 稀壽라고도 일컬음
— 일흔일곱살을 이르는말
— '禧'자의 초서체 '𠂔'가 七十七과 비슷한데서 이르는말
- 80세 : 산수(傘壽) — 傘의 4획 수이 八十과 비슷해서 이르는 말
- 88세 : 미수(米壽) — '米'의 8획이 八十八을 나타낸다고하여 이르는말
- 90세 : 졸수(卒壽) — '卒'자의 초서체인 '𠂔'이 九十을 나타낸다는데서 이르는말
- 99세 : 백수(白壽) — '百壽'의 '百'에서 一을 빼면 99가 된다는데서 이르는말
- 100세 : 백수(百壽) — 百세까지 壽를 누린다는 말

경조문(慶弔文) 서식(書式)

결혼식(結婚式)

축성전(祝盛典)
축성혼(祝聖婚)
축혼인(祝婚姻)
축화혼(祝華婚)
축결혼(祝結婚)

사례(謝禮)

비품(菲品)
박사(薄謝)
미충(微衷)
약례(略禮)
박례(薄禮)

대소상(大小喪)

비의(菲儀)
비품(菲品)
박의(薄儀)
향전(香奠)
전의(奠儀)

회갑연(回甲宴)

축희연(祝禧筵)
축수연(祝壽宴)
축회갑(祝回甲)

출장(出張) · 여행(旅行)

미의(微意)

축하(祝賀)

축입선(祝入選)
축당서(祝當選)
축영전(祝榮轉)
축우승(祝優勝)

칠순(七旬)

축고희(祝古稀)

초상(初喪)

전의(奠儀)
근조(謹弔)
부의(賻儀)
조의(弔儀)
향촉대(香燭代)

기타(其他)

석별(惜別)
쾌유(快癒)

결혼기념식(結婚記念式) 명칭(名稱)

1주년 — 지혼식(紙婚式)
2주년 — 고훈식(藁婚式)
3주년 — 과혼식(菓婚式)
4주년 — 혁혼식(革婚式)
5주년 — 목혼식(木婚式)
7주년 — 화혼식(花婚式)
10주년 — 석혼식(錫婚式)
12주년 — 미혼식(梔婚式)

15주년 — 동혼식(銅婚式)
20주년 — 도혼식(陶婚式)
25주년 — 은혼식(銀婚式)
30주년 — 진주혼식(眞珠婚式)
35주년 — 산호혼식(珊瑚婚式)
45주년 — 홍옥혼식(紅玉婚式)
50주년 — 금혼식(金婚式)
60. 75주년 — 금강혼식(金剛婚式)

漢字教育의 현황과 대책

— 본란은 사단법인 傳統文化研究會(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84-6 낙원빌딩 411호 전화 02-762-8401)에서 1998년 11월에 출간한 단행본을 받아서 轉載한다. —

순서

- | | |
|--------------|-----------------|
| 1. 概要 | 4. 漢字教育不實의 問題點 |
| 2. 漢字教育의 現況 | 5. 漢字教育의 正常化 對策 |
| 3. 漢字教育의 必要性 | 6. 漢字教育의 效果 |

1. 概 要

歴史的으로 우리 나라의 文字生活은 漢字와 한글, 두 개의 문자를 사용하여온 특수한 상황이다. 國漢文混用의 문자생활은 근세 개화기와 日帝, 그리고 광복 건국과 군사정권기를 거치면서 한글전용 方向으로 변화되어 왔다.

건국후 한글專用 法律이 제정되어 한글전용시책과 漢字教育 中斷 등 문자정책이 隨時로 變更되어 왔으며, 근래 한글專用論者들은 漢字教育과 使用을 拒否한 채 한글전용만이 愛國이고 漢字教育은 事大主義 잔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國漢文混用論者들은 한글전용은 한글로 表記했을 뿐이지 언어생활에서 70%를 차지하는 漢字語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表音文字인 한글과 表意文字인 한자를 調和시켜 사용함이 文化振作의 길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漢文教育論者들은 初等學校에서부터 漢字教育을 強化하여 必須科目化하고 漢字使用 문제는 각자에 맡긴다 한다. 초등학교에서 漢字教科가 裁量(선택) 과목(3년~6년)이나, 必須科目인 英語時間 증대로 사실상 재량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글전용이 강행된 후 한글 사용이 교육, 언론, 출판 등 각계에 과급되어, 그 결과 문화의 表皮化, 空洞化 현상을 초래하여 文化競爭力 저하와 傳統文化의 傳承 啓發의 장애와 漢字文化圈에서의 孤立 그리고 統一후 漢字教育 불균형 문제 등 「文化危機」의 초래를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자정책은 教育文化政策의 基盤이므로 21세기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새 政府의 출범을 계기로 再檢討가 必要하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한자교육에 대한 現況과 問題點 및 對策을 검토하여 文字教育政策에 반영하고자 하는 바이다.

2. 漢字教育의 現況

1) 敎育漢字 制定 및 變遷

- ① 1951년 常用한자 1,000자
- ② 1959년 임시허용 한자 1,300자
- ③ 1972년 한문敎育용 기초한자 1,800자 - 중학 900자, 고교 900자
- ④ 초등敎育용 한자는 市道敎育청에서 정한 600자 내외로 裁量(선택, 3년~6년)시간에 敎育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없어(英語시간 증대로) 자습 또는 特活시간을 활용함.

2) 敎科書의 文字政策 變遷

- 1949년 - 國漢併用
- 1964년 - 漢字混用
- 1970년 - 한글전용
- 1975년 - 國漢併用

3) 東北亞의 敎育 · 常用漢字 현황

- 中國 - 상용한자 3,500자
- 日本 - 敎育한자 1,945자 (소학교 1,006자)
- 臺灣 - 標準字體表 4,808자
- 北韓 - 1964년 漢字敎育 復活, 敎育한자 3,000자 (초등5년~중등2년 : 1,500자 대학까지 3,000자)

※ 關係부서 - 語文政策 소관 : 文化관광부
敎育政策 소관 : 敎育부

4) 한글과 漢字의 長短點

- ① 한글 - 장점 : 배우기 쉽고 쓰기 간편, 表音力, 한글구조의 科學性 등.
단점 : 語彙 本意 파악 곤란, 同音異語 구별 곤란, 進語力 한계성, 理解力 저하, 縮約力 한계성, 文化傳統 계승 不實 등.
- ② 漢字 - 장점 : 表意力, 理解力, 讀書力, 進語力, 思考力, 應用力, 縮約力 등.
단점 : 표기 복잡, 多樣性, 字數 다수, 한글보다 學習이 어려움 등.

5) 文字政策論 개요

① 한글專用論

- 한글전용법 근거
- 한글전용은 애국
- 초등학교 漢字敎育 反對
- 교과서의 漢字語 露出 지도 반대
- 韓國學 전공자 漢文敎育 강화
- 한글학회 등 주장

② 國漢文混用論

- 國語 敎育 충실
- 漢字文化圈 유대 강화
- 초등학교 1,000자 敎育 - 전 교과에 漢字 露出
- 初中等學校 敎科書의 한자어 노출 지도 - 1,800자

- 한글專用法 廢棄案 국회 제출
- 韓國語文會 등 주장

3. 漢字教育의 必要性

위에 기술한 내용을 分析 綜合하면 다음과 같은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導出할 수 있다.

1) 國語의 올바른 이해와 표현, 語彙力 신장

우리말의 語彙 중 漢字語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국어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말 어휘의 正確한 理解가 선결되어야 한다. 漢字語는 語素인 한자의 訓과 音を 통해 익힐 때 한자 어휘의 概念과 意味 파악이 쉽고 정확해져, 國語能力과 國語生活의 向上은 물론 效果的인 國語教育과 語彙力 伸長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한편 北韓의 漢字教育(3,000字) 강화로 인한 統一后 漢字교육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2)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文化의 正體性과 競爭力 신장

전승된 우리 민족의 高級文化는 漢字·漢文의 이해 없이는 알 수 없으며 이를 계승발전시키므로써 文化傳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문화의 正體性을 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自主性을 유지할 수 없으며, 21세기는 文化의 時代라 하는 차제에 전통문화를 國際 文化商品으로 세계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3) 人性教育의 효과적 실현

人間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人倫과 道德, 그리고 올바른 價値觀을 지녀야 한다. 이에 東洋 傳來의 고유한 한국의 美風良俗이 담긴 한자의 교육은 그 중요성을 명백히 한다. 오늘날 西歐化된 知識과 技術教育으로 양산된 한글 世代의 意識과 情報産業社會와 賤民資本主義的風土에서 야기된 人間性 상실을 治癒하기 위해서도 漢字教育은 必需的이다.

4) 漢字文化圈의 調和와 BESETO belt 구축

이제 21세기는 세계의 중심축이 東北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그 때에 한자는 바로 共用文字 또는 國際文字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될 것이다. 즉 21세기는 한자의 BESETO belt(BE : Beijing, SE : Seoul, TO : Tokyo)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한자를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는 中國·日本과의 文化·教育·政治·經濟 交流에서 낙오되어 孤立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漢字를 초등학교부터 교육하지 않고 英語만 가르치다가는 우리가 세계화로 나아가기전에 東北亞의 主導的인 위치에서 淘汰되거나 그들과의 競爭에서 뒤질 것은 明若觀火하다.

4. 漢字教育 不實의 問題點

1) 國語生活 能力의 低下

- 精確한 語彙 이해 부족 등 文章力, 思考力 저하

- 道具科目(漢字) 교육 부실로 他教科 교육 지장
- 高等教育에서 전공도서 讀解力 低下 - 학문수준 하락
- 漢字 讀解力 低下로 社會生活 지장 - 교양, 實用
- 南北韓 漢字교육의 불균형 - 統一후 漢字교육 문제 야기

2) 文化 正體性的의 약화

- 傳統文化的의 이해 深度 저하 - 전통과의 단절 위기
- 共同體 意識 붕괴 - 세대간 의식 차이 심화
- 韓國 文化商品 개발 저하 - 예술, 관광, 문화유산
- 우리 문화에 대한 劣等意識과 현대적 事大(歐美) 의식 심화
- 「文化危機」 초래 - 文化的 表皮化 空洞化

3) 美風良俗과 윤리 도덕의 退藏

- 人間性 상실 - 지식과 기술교육 중심
- 倫理道德의 추락

4) 表皮文化圈에서 이탈 촉진

- 文化・經濟 交流 저해 - 학생교류, 交易
- 共通文字의 疏通 不能 - 표지판, 筆談
- 東洋文化圈의 調和 不能 - 中・日과 동남아

5. 漢字教育의 正常化 對策

- 1) 초등학교에서 漢字科目을 必須科目으로 교육하고, 국어 교과서의 漢字語를 지도한다.
- 2) 중등학교에서 한문과를 독립 必須科目으로 하고, 국어 교과서의 漢字語를 지도한다.
- 3) 教育大學과 師範大學에서 漢字・漢文교육을 必須로 교육한다.
- 4) 大入 修能考查에서 漢字문제를 출제하고, 국어문제의 地文을 國漢文混用으로 한다.
- 5) 각종 任用고사(교사, 공직자)에서 漢字 能力을 평가한다.
- 6) 初等教師의 漢字・漢文教育 研修를 강화한다.

6. 漢字教育의 效果

- 1) 國語 교육과 제반 학력 신장
- 2) 우리 문화의 傳統과 正體性 確立
- 3) 우리의 倫理道德 교양과 美風良俗 진작
- 4) 21세기 先進 文化基盤 구축
- 5) 생존권자인 동북아 유대 強化에 기여
- 6) 統一후 南北간의 漢字教育 均衡 유지

상담은 자기 성장과 변화를 위한 대화입니다.

예산군 청소년 상담실

금오산 중턱의 소나무로 주변을 장식하고 있는 예산군 청소년 상담실은 1995년 2월 정부의 시책에 의해 개원하여 전임 상담원과 자원 상담 봉사자 7명으로 구성되어 예산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소비주의적 분위기로 자꾸 전환되어 가는 상황에 청소년기에 발생하기 쉬운 여러 가지 내면적인 충동으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청소년 상담실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전화 상담, 집단 상담, 면접 상담, 각종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자기 성장프로그램, 청소년 심리극, 또래 상담 훈련 프로그램, 성교육, 좋은 친구되기 여름 캠프, 충청남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기 성장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진행되고 있고 부모나 교사, 자원 상담원을 대상으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대화 기법, 성격유형 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 타인 이해, 자녀의 학습 관리 프로그램, 심성개발 프로그램, 지역내 상담자를 위한 워크샵, 성인을 위한 자기성장프로그램 등 청소년 자녀를 지도하는데 어려운 점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노력하는 좋은 부모가 되는 토론의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청소년 관련도서, 시청각 자료 등을 구비하여 무료로 대여도 하며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상담실이 되도록 새로운 분위기 창출에도 노력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청소년의 달에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한 번 우리들의 생각을 검토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자원 상담봉사자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청, 각 학교, 기타 사회단체와도 연계하여 각 프로그램을 상호 협조하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예산군 청소년 상담실은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진실된 관계를 형성하고 올바른 자신의 모습을 찾아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산4-15(문예회관 내) 0458-335-5700, 5701

전임상담원 황보경희

